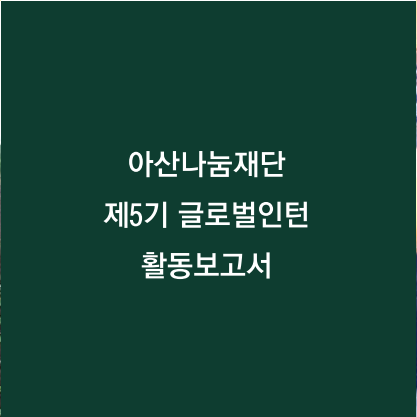




1940년대 초 창업 초기 직원들과 금강산에 오른 아산 정주영



스스로 원해서 어려운 일을 맡고,
시련을 이겨내는 경험을
젊을 때에 미리미리 쌓아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사는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자세다.

아산(峨山) 정주영

CONTENTS

아산나눔재단 소개	2
글로벌인턴 프로그램 소개	4
제5기 글로벌인턴 발자취	6
인턴 수기집	
중국	8
인도	20
브라질	29
러시아	38
베트남	43
사우디아라비아	52
U.A.E.	85

아산나눔재단 소개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꿈의 주체이자 미래를 창조하는 주역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청년들의 ‘건강한 젊음’에 의해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이 오늘의 청년들에게도 삶의 지표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역경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꿈과 열정, 도전과 창조, 나눔과 책임정신을 가지고 이루어 낸 아산의 정신을 오늘의 청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VISION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지향합니다.

MISSION

아산나눔재단은
젊은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배움의 장을 열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핵심가치

꿈과 열정: ‘나’를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열정
도전과 창조: 창조적 변화를 이끄는 도전 정신
나눔과 책임: 더불어 사는 책임주체로서의 성숙한 자의식

사업선택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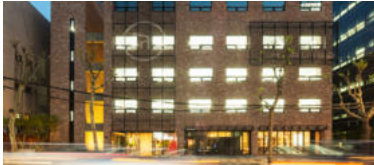
역량개발: 일회성, 시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적 파급효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자생력 복원: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사업진행의 방식

책임성: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지만 책임 있는 투자
질적 성과: 양적 사업성과를 넘어 질적인 사업성과를 추구
투명성: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청년창업 활성화

아산나눔재단은 창업에 꿈을 지닌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누구나 청년 정주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창업지원공간 MARU180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글로벌리더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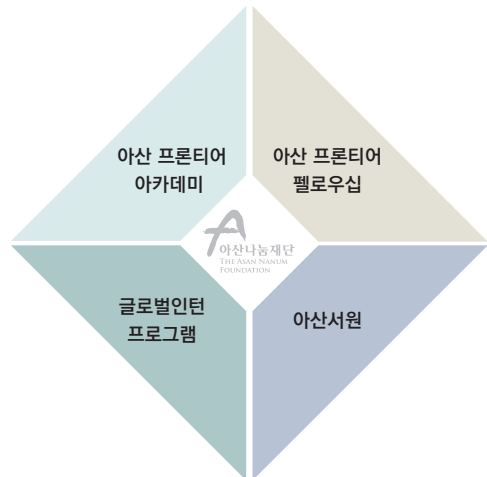
아산나눔재단은 세상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청년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비상하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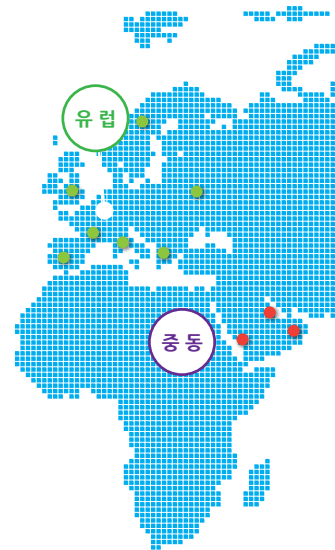
글로벌인턴 프로그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글로벌인턴 프로그램 소개



1기



11개국

20개 사업장

175명

2기



18개국

39개 사업장

222명

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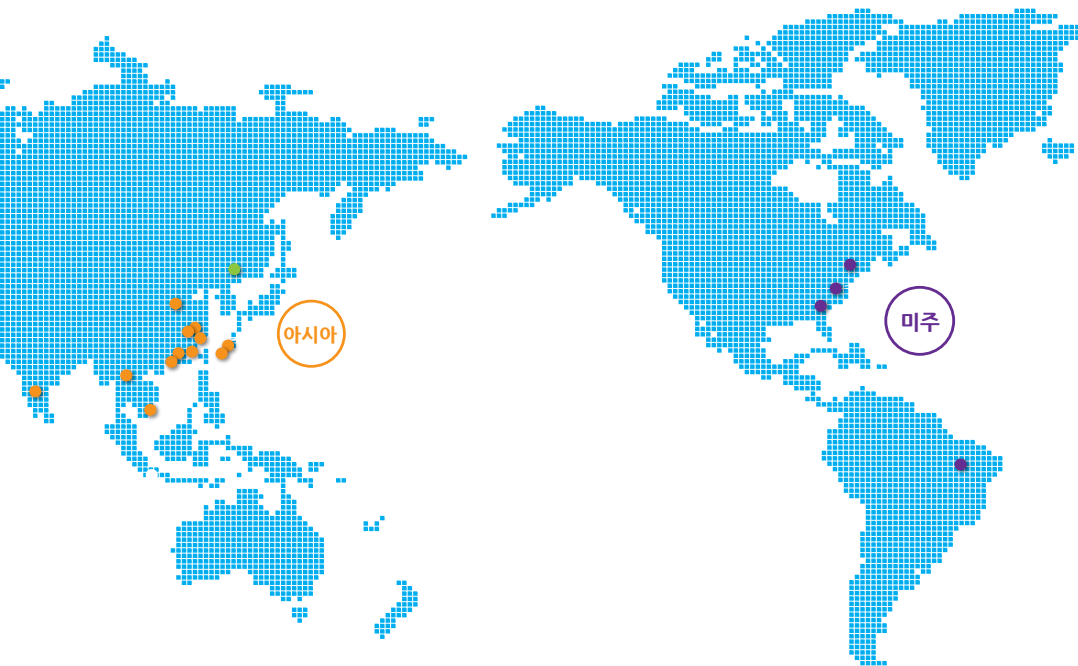


8개국

20개 사업장

58명

아산나눔재단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은 글로벌리더 양성 및 도전 정신 고취를 위해 한국 글로벌 기업의 해외 사업장에 인턴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은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하며 청년들은 해외에 나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동시에 해외 현장에서 실무를 쌓을 수 있습니다.



4기



9개국

17개 사업장

44명

5기



7개국

11개 사업장

46명

6기



6개국

10개 사업장

38명

제5기 글로벌인턴 발자취



2014.02.18. 제5기 글로벌인턴 면접



2014.03.18 ~ 22. 제5기 글로벌인턴 사전교육 및 발대식



2014.04.01. 제5기 글로벌인턴 현장파견



2014.08.22. ~ 24. 제5기 글로벌인턴 귀국워크샵

CHINA



Beijing

김영남
김철진
박상민
이종혁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China Beijing

“철저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경영으로 정상에 있는 북경법인”

약 481명의 현지 직원과 10명의 주재원이 이끌어 가는 현대중공업 북경법인! 현대중공업 북경법인은 중국 북부 서남쪽에서 2002년 9월 1일 현지 생산법인으로 출발했으며 현재 연간 약 6,000대의 지게차와 중소형 굴삭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법인장 이하 전직원들의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현지의 다른 기업들 보다 확실하게 우위를 선점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북경법인은 훌륭한 현지직원들과 함께 상생 및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복지확대 및 한국본부 연수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사천성(四川省) 대지진 당시에는 23억 상당의 19대 중장비를 가장 먼저 참사 지역에 투입 시키는 등 사회에 대한 공헌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현대중공업에 대한 높은 인지도로 인해 현지인들의 입사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습니다.



김명남 서강대학교/경영학



“그는 자연인이었다..
앞으로도 자유롭게
쉴쉴 날아가길...”
박상민

“대륙에서의 4.5개월, 스스로를 다지는 시기”

처음 아산나눔재단으로 면접을 갔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때의 긴장감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에 땀을 쥐게 됩니다.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빨리 졸업이나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제게 너무도 감사한 기회였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4월 2일, 북경에 도착하여 처음 법인으로 출근한 날, 저희 4명(박상민, 김철진, 김명남, 이종혁 인턴)은 ‘현대’마크의 작업복을 입고 부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부서로 배치 받고 전무님과 각 직원들과 인사를 하다 보니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원래 아침잠이 많아 6시에 기상을 해서 어떻게 출근을 할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결국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여가시간에도 틈틈이 현지인들과 친분을 쌓고 공부를 하는 등 알뜰히 지내다 보니 4.5개월은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업무 외에 가장 즐겁게 보냈던 시간은 전체 직원들이 야유회를 갔었던 때입니다. 북경에서 약 100km 떨어진 고산지대로 등산을 갔었는데 시내를 벗어나 외곽지역을 가보니 건물이나, 시설들이 우리나라 80년대 수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중국이 많이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등산을 하면서 대지의 기운을 얻을 수 있었고 현지 직원들과 두터운 친분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대학교를 다니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한 번 도전해보고 싶을 만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사령탑에 올라서다”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두 시간 만에 중국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인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북경의 대기오염 때문에 가기 전에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고 거리마다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공원들이 조성되어 환경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2,500만명이 북적북적 되는 북경에서 지내면서 놀랐던 것은 그 많은 사람들과 타지사람들의 모든 문화를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수용능력이었습니다. 북경의 실업률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소득도 개혁·개방 메카인 심천과 상해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7세기에 벌써 북경으로 남방의 곡물과 자원을 실어 나르기 위해 한반도 길이보다 더 긴 대운하를 건설했고 지금은 북경의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 가장 길다는 양쯔강의 물을 끌어 올리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도가 북경과 대도시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그들의 문화와 현재 중국의 상황과 변화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지 직원에게 업무를 배우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였고, 자신들도 지금보다 더 나은 중국의 미래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하여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북경은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이 위상을 떨치고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중메이트로
항상 함께 일하고
여행가고
많은 것을 나누는 형,
사랑해.”
이동혁

박상민 한국외국어대학교/산업공학



“북경법인에서의 전문적인 업무 기회”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걱정한 것과는 달리, 품질경영부 최종검사와 통역직원의 부재는 제가 정식으로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일 각종 보고서를 번역하여 현지직원과 함께 회의하고 한국 본부에서 온 출장자의 담당 통역사로서 7월 중에는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또한, Organization Assessment/Service(OA/S)부 통역협조 요청으로 KB오도텍 출장자의 담당통역사로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굴삭기 에어컨 불량품 검사도 하며 실무를 익혔습니다. 품질부서장님과 전무님께 보고 드릴 최종보고서 및 자료들도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조립제품 (Complete Knock Down, CKD) 불량품 검사결과서를 번역하여 한국본부 사이트에 등록하고 CKD불량품 현황을 원활히 관리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문적인 일들에 대해서 법인에서 일해보지 않고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턴이란 이름 아래 너무나 많은 전문적인 일들을 해서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앞으로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큰 자산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상민 씨,
그는 차암~
좋은 룸메이트였습니다.”
김영남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말 한마디 모른 채 온 그대.
처음에 다소
경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으나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다.
그는 뛰어난 적응력으로
한 주일만에
중국의 거의 모든 음식들을
두난히 소화할 수 있었고,
스스럼없이 중국인들과
어울리더니 어느 순간
“타국의 킹”으로 떠올랐다.
그를 통해 중국에서
더 이상 언어장벽이란
없다고 느꼈다.”

김철진

“시간과 노력은 절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짜이찌엔’도 모르고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왔을 때, 모두 한자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 때 느낌은 마치 처음으로 유치원을 들어가는 어린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첫 출근 때, 부장님께서 갑자기 부서 직원을 모두 모으시더니, 중국말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니하오.....”하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 때부터 이를 악물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아니 퇴근하고도 계속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은 그 누구도 속이지 않나 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께서 제게 직접 중국어 실력이 상당히 늘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굴삭기 고장내용과 조치 내용 번역 업무를 지시하면서 “너 이거 할 수 있지?” 하고 물어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변명거리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때 불현듯, 사전교육 때 과제로 읽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하면 된다. 시련은 있어도 불가능은 없다”는 그 마음으로 전문 용어 사전과 중국어 사전을 번갈아 찾아가며 번역에 몰두하고 결국은 업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 귀국 즈음이 되자, 부장님은 직원 모두 앞에서 이제까지의 소감을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는 유창하고 당당하게 중국어로 소감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의 감격은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의 발전은 나의 발전이고 나의 발전은 회사의 발전이다” 라고 외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북경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며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미래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한국의 발전이고 한국의 발전은 중국의 발전이다” 라는 상생의 의미도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중국을 그려보며 중국어도 익히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이 감사했고 이를 통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제2의 고향이 된 중국이 저와 함께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탐방



“북한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올림을 띄우다”

5.1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3일간의 휴일이 생겼습니다. 중국 동북 3성 중 하나인 요녕성과 단둥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압록강을 사이로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단둥은 일찍이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첫 관문이었었고 우리나라 역사가 곳곳에 스며있는 곳입니다. 단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구려의 옛 도읍이었던 국내성이 위치해 있고 유명한 ‘위화도 회군’의 현장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단둥 거리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간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압록강 강변에 이르렀을 때, 북한의 생생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제가 바로 지척에 있는 북한땅을 밟을 수 없다는 상황이 답답하여 고향을 향해 한 번 크게 소리쳐 보았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압록강 한가운데 들어서니 개혁·개방으로 발전된 단둥의 시가지와 몇 10년간 발전이 멈춰있는 것 같은 북한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 관광객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강 건너편 북한사람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중국을 통해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았습니다. 단둥 여행을 통해 중국인들의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중국을 오고 갈 수 있는 그 순간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CHINA



Shanghai

김다솜

김선화

ABOUT

Hyundai Oilbank China Shanghai

“중국 대륙만큼 큰 시장 잠재력을 위해 전략적 고군분투”

중국의 까다로운 규제 속에 석유화학 제품으로 진출한 현대오일뱅크 상해법인은 중국시장 개척이라는 확고한 목표 아래 2012년 10월 12일 ‘現代能源貿易上海有限公司’ (현대 에너지 무역유한공사)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중국은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최대 생산국인 동시에 최대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 내 최대 석유 수요처로, 법인 자체 명의의 제품 직거래를 개시하는 등 무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 석유 시장에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등)관련 사업이 보호 산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국 국영 기업 외 외자 및 일반 기업의 거래가 제한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래가 용이한 석유화학제품(프로필렌, 파라자일렌, 유황 등)을 위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제품 수요처인 상해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이 위치해 있는 서해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석유화학 제품 거래 외에도 신규 제품 Pre-마케팅, 거래처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법인은 장기 비전 사업으로 Hyundai Shell Base Oil 社(현대오일뱅크와 Shell사의 합작 회사)에서 만들어진 윤활기유와 본사에서 생산하는 윤활유 제품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성섬유의 주원료인 BTX 거래를 개시하는 등 중국 내 현대오일뱅크의 발전을 위해 3명의 주재원을 포함한 총 10명의 직원 모두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4.5개월 간, 현대오일뱅크 상해법인에서의 생활 중, 가장 보람찬 일이 무엇이었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을 얻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틈만 나면 대화하다 함께 잠들었던 룸메이트이자 매일 함께 출근하고 퇴근했던 동료이자 동년배로 비슷한 고민을 하며 모든 것을 공유했던 상해의 반려자, 김선화 인턴. 저는 그녀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4.5개월 동안 상해에서 동거동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생활 중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상해법인에서 함께 생활한 김선화 인턴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상해법인에서 때로는 아버지 같고, 때로는 학교 선배 같고, 때로는 엄격한 교수님 같았던 법인장님, 차장님, 대리님, 그리고 배 대표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함께 모여 저희들에게 진로 선택에 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던 날들, 늦은 퇴근 후에 삼겹살을 구워주시며 꿈과 포부에 대해 공유했던 순간, 자유무역지구에서의 아지트인 상해 스타벅스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 사내 메일로 본사에 전해드렸던 중국기사 번역작업을 귀국 무렵에 수고했다며 격려해주신 직원분들. 타지에 있어도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란
과제와 함께한 4.5개월.
그리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우리.
수고했고 잘 부탁드립니다.”
김선화

주변에서 저를 위해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준 분들이 있어서 더 값진 경험과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상해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어디에 있든 곁에 저를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어디서든 곳곳하게 잘 지내고 변화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김선화 한동대학교/경영학, 상담심리학



“무야...
나랑 밀당 그만해,
완전 사랑하니까!”
김다솜

“몸과 마음으로 직접 배운 의전의 정석”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으며, 중국은 넓고 사람은 많다’는 것을 몸소 느낀 4.5개월의 인턴생활에서도 단연 으뜸의 기회와 경험은 역시 ‘현대오일뱅크 상해법인’과의 인연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경제의 중심인 상해에 있어서 현지 관계자 외에도, 한국 본사의 직원 분들이 방문하는 필수 출장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본사에서 화상회의의 관련 장비설치를 위해 경영IT팀의 관계자 분들께서 출장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법인 차장님께서 “상해를 출장 오신 분들께 가이드를 해 드릴 수 있겠냐?”는 말씀에 저희는 기대와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동료와 함께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상해 명소와 맛집을 알아보고 수행한 ‘제 생애의 첫 의전’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정통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데 중국 사람의 왕성한 대화로 너무 시끄러워 서로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아 주문이나 식사에 애를 먹고 길을 잘못 들어 30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험과 박진감이 넘쳤던 의전을 실패한 후에 비로소 현지 법인장님과 주재원 분들이 얼마나 의전 하나에도 세심함을 기울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의전 장소와 귀빈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보고 관광지 가이드 때에는 어디가 가장 멋진 view 인지, 어떤 곳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등을 보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진정한 배려와 의전의 묘’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턴 신분으로 수행한 첫 사회경험인 만큼 모든 것이 배울 것들이었지만, 밤낮 가리지 않고 일에 열중하시는 주재원들, 언어는 다르지만 항상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임하는 중국 현지 직원들, 그리고 멀리서 항상 소통하며 응원하는 본사직원들까지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다숨: “잠깐만 기다려봐. 지갑이 없어진 거 같아.”

김선화: “뭘라구?”

김다숨: “지갑이 없어. 돈, 집 열쇠, 카드. 다 사라졌어.”

아무리 화려한 국제도시, 상해라 하더라도, 상해도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에 살면서 소매치기 당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라고 했으나, 당시에 저희는 좀도둑에게는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현지인과 같은 자신감이 충만했고, 가방은 항상 앞으로 뻗으며, 무엇보다 저희는 좀도둑이 훔치고 싶은 물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해에 거주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우리는 중국의 정원 중, 가장 정교하고 섬세하다는 상해 문화의 중심지인 ‘예원’에서 거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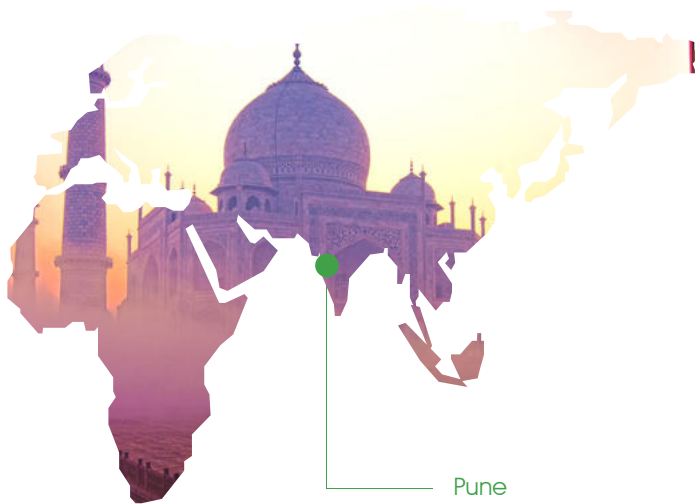
모처럼 들뜬 마음으로 ‘예원’에 갔습니다. ‘예원’ 근처에 내리자마자 우리의 여심을 반겨준 것은 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화려한 액세서리와 필기도구를 장식하고 있는 전지현, 김수현 사진을 보며 정신이 팔려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반쯤 열려있는 각자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가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땀 한 톨도 없는 국제미아가 되어 버린 느낌에 저희는 서로 눈물을 그렁그렁 담고, 당장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았습니다. 1년 걸던 20분이 지나서야 겨우 한국인 여자 2분을 만났고, 택시 요금을 간신히 빌려서 겨우 겨우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설상가상으로 열쇠가 없어서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 열쇠를 따는 전문인을 불러 결국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묶고 있던 숙소에서 저희는 경비 아저씨들 사이에 용감한 한국인 여자이자 슈퍼스타가 되었고, 정말 혹독한 상해 생활의 신고식을 치른 ‘예원’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때는 정말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이 촉매가 되어 서로 항상 긴장을 하며 매사에 조심하고 더욱 끈끈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4.5개월의 상해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의연하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은연중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자만심과 해이함을 단박에 날려버린 그 ‘예원’에서의 신고식이 아직도 달콤쌉싸름한 기억으로 남아 웃음짓게 합니다. 거저 얻게 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험들이 더 강하게 성장한 저희들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NDIA



Pune

권예진
김종명
이명재
이시은
최진수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India Pune

“사업의 요충지 인도 푸네법인을 소개합니다”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부 인도법인은 인도의 서부 푸네(Pune)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푸네는 데칸 고원에 위치하고 있어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선선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Pune 대학, Symbiosis 대학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학과 교육기관들이 모여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과 인도 대학생들로 북적거리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푸네의 외곽지역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Mercedes-Benz, Volkswagen 등 세계 명차 부품조립공장과 JCB, SANYO 등과 같은 인도 내 경쟁업체들의 공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에 위협과 경쟁을 초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인력의 수급, 유관업체들의 부품 공급 등과 관련해서는 집적이익과 시너지 효과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인도 푸네 법인은 현재 시장 점유율 기준, 건설장비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장비 분야의 경쟁에 뛰어들어 지 5년 만에 점유율 18.9%라는 놀라운 성장으로 인도 시장에서 주목 받는 건설장비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최근 인도 경기 침체로 인한 루피화 약세로 건설장비 시장이 위축되었으나 탄탄한 내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모든 직원들이 현대 정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권예진 성균관대학교/경제학



“개구쟁이 같으면서도
결단력이 있었던
악동 숙모님!
앞으로도 화이팅이에요!^^”
이시은

인도법인 자재구매부서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떠오른 기존 구매부의 이미지는 모든 업무를 사무실에서만 진행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들어가니 오히려 현장에 나가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출근 후, 부서 미팅이 끝나자마자 구매부 직원 대부분이 공장 전체를 돌며 자재운반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작은 부품 하나 하나에도 매의 눈으로 결함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처음엔 손톱만한 부품 하나에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나 싶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장님과 동행하면서 업무를 배워가며 제가 무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매부의 본질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매 업무는 최적의 합리적 가격으로 자재 및 필요 용품들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재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통해 최고의 비용절감을 이끌어 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인턴실습 3주차부터는 구매부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 이해하고 자재 및 작은 사무용품 하나도 제 것처럼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인의식이 없다면 회사의 자산 하나 하나에 애착을 갖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작은 것에서부터 낭비를 줄인다면 회사 전체 재산을 아낄 수 있는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서 삶에 적용시킬 것들이 참 많아서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한 노력이 나를 위한 최선의 노력”

기술적으로 인도 푸네 법인에 파견된 저는 생산부서에 소속되어 ‘재도장’(관련 장비를 다시 색칠하는 작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조립과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페인팅 손상이 심각하여 재 도장 시 불필요한 인력소모와 자원이 낭비되어서 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원인을 찾아내고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아시시’라는 현지직원의 도움을 받아 기존 자료를 받고 현장으로 투입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생소하여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일이 다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알아나갔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처럼 제게도 현장경험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 적응을 돕기 위해 현지 직원들은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어 당혹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다정다감한 현지동료들 덕분에 모두가 친해지며 회사를 위한 아이디어도 스스로없이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으로서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 덕분에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더욱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프렌즈!
쭈쭈 뵈면어나가라!!”
최진수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졌다고 느껴질 때, 저는 ‘맨아워체크’(man-hour control system)등의 세밀한 조사를 통해 발전된 현장의 공정체계를 위해 개선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회사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저를 위한 교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자주 활용할 기회가 없었는데, 영문 번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직장 생활에서 동료와의 관계,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이 경험과 정보들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글로벌인턴 경험을 통해 앞으로 이 자신감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평생같은 자세로
인도의 저주와
역경(?)을 버티내고
두사귀국 해주셔서
너무 고맙워.”

김종명

“스펙트럼 같이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는 인도”

인턴 기간 중 가장 값진 경험은 역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동안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으나, 역시 많이 부족한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인도는 정말 너무도 묘한 매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전통 고수와 선진 문물 수용이란 두 문제를 같이 떠안고 있어서 좀 더 빠른 발전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이 두 가지 문제가 정말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전통을 사랑하고 소중히 보존하며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인도인의 삶의 자세가 알고 보면 지금의 오랜 역사와 고전을 담아낸 지혜였고 성장의 원동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도 물론 선진문물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산업도시는 대기와 수질오염을 앓고 있습니다. 두루 두루 문제점과 잠재력이 공존하지만, 그 둘이 미묘하게 어우러져 더욱 가능성 가진 국가 또한 인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푸네 법인에서 업무를 하며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로 영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화해실력도 높고 교류를 많이 하게 되어 인도인들의 개성과 고유함을 직접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거주, 실습 등 세가지를 다 해봤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같이 일을 해보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아직 발전이 많이 필요한 나라인 만큼 발전 가능성도 큰 나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상사 분들이 가끔 티타임을 제안하곤 했었는데 돌아켜보면 그 시간의 일분일초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빼와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품은 기대감으로 인해 초반에 밀려온 실망감도 결국 해결의 열쇠는 저한테 있음을 알고 귀국 즈음에는 배가되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시은 부산대학교/재료공학



“또 다른 나라, 인도”

인도는 배낭여행의 종착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행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인턴으로서 파견되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글로벌인턴으로 활동하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들을 통해 인도를 아는 것 이상의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무언가를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 오기 전, 마치 나무의 무성한 나뭇잎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던 걱정과 불안들이 기대감과 희망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부딪치고 경험하면서 실제 보여지는 것 외에도 진실과 현실이 공존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4.5개월동안 진정으로 인도를 배우고 얻어 왔습니다.

보다 넓은 세계를 향해 도약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인도에서 파견생활을 하면서 저는 또 한 번 크게 성장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진 인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며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은 즐겁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때론, 제 자신의 한계를 느꼈지만 그런 것을 채우고 벗어나기 위해 매 순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를 달성하여 만끽하게 되는 그 뿌듯함은 정말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스스로를 발견하는 기회로 가득한 인생이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시은아,
언제든 예뻐하게 화만전서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길 바래. ^^!”
권예진

최진수 인하대학교/전기공학



“진수야,
언제나 든든하게
회계를 보고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줘서
고맙워.”
이명재

“위기는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이다”

인턴 기간 중, 인도법인의 불량부품과 훼손부품들의 진단 및 처리를 위하여 본사에서 출장자가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장 오신 분께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직원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소 힘들어서 한 주일 동안 통역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영어로 현지직원들과 장난도 치고 비즈니스 대화도 종종 하였지만, 능숙한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통역업무에 대한 공포심이 먼저 생겼었고 막중한 책임감과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통역일은 시작되고, 처음 우려대로 쌍방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많이 서툴렀고, 경청을 했지만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몇 번이고 현지 직원들에게 다시 물어봐야 했습니다. 제가 통역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중, 또 집중해서 듣고, 제대로 정확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현지직원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반복해서 물어보고 다시 연습해서 말해보며 부족한 점은 보충했습니다.

통역 업무 3일째 되는 날, 출장 오신 분께서 영어가 처음보다 많이 늘었다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를 현지직원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영어에 자신감이 붙은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체감할 수 있는 발전과 성취감을 발판으로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통역에 임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현지 직원들에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대할 수 있었고 그들과의 소통에 있어 깊이도 생겼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통역업무가 기회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 회상하면 제가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화탐방



“잊지 못할 인도의 금빛 트라이앵글 코스 여행”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도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도가 가진 특유의 신비로운 문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도가 파견지라서 다른 인턴들이 부러워했던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난히 사원과 힌두문화를 잘 나타내는 건축물이 많은 인도에는 문화체험을 위해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인도의 연휴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달아 붙는 시기에는 먼 곳까지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델리를 축으로 하여 삼각형 형식으로 여행하기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플랜은 그 유명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인도의 대표적인 여행코스입니다. 델리를 시작으로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를 지나 핑크시티로 유명한 자이푸르 까지입니다. 델리구경은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먼저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향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여행코스는 한 곳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이 차량으로 약 6시간 소비되기 때문에 굳은 여행의지가 필요했습니다.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보고 저희는 절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건축물의 위상은 상상과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맑은 순백색을 자랑하는 거대한 건축물이 각각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신비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타지마할’은 ‘샤자한’이라는 왕이 죽은 아내를 위해 만든 무덤이고, 후에 왕위를 빼앗긴 왕은 ‘아그라 포트’에 갇혀 ‘타지마할’을 보며 아내를 그리워하다 죽어갔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비한 여운이 남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자이푸르였습니다. 핑크시티로도 유명한 이 곳은 온 세상이 분홍색을 띠어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도시였습니다. 섬유 도시로도 유명해서 직물상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암베르 포트’도 감동의 여행지였습니다. 마치 인도판 만리장성을 연상시키는 듯, 능선을 타고 만들어진 그 곳은 황홀경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포트 위에서 내려다 본 자이푸르 전경은 영원한 명작으로 맘 속에 담겨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스펙트럼 같이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과 의상을 그리고 개성 강한 현지인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간혹 당혹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더 많이 느끼고 배우고 성장하게 되었던 여행 같습니다. 혹, 인도를 가보고 싶은 분은 ‘골든 트라이앵글’ 여행 코스를 꼭 방문해보길 적극 추천합니다!



BRAZIL

Sao Paulo

권세명
김래환
김서윤
김 윤
박민기
이은세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Brazil Sao Paulo

“떠오르는 산업도시에서 떠오르는 해외법인으로 발돋움할 HHIB”

현대중공업 브라질 법인은 남미 경제의 중심인 상파울로(São Paulo)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이따찌아이아(Itatiaia)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1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해 2013년 4월 건설장비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굴삭기, 휠로더, 백호로더 등 주력 건설장비 생산 규모를 늘려 중남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판매량도 매년 20% 이상 늘어나 2016년에는 브라질에서만 약 4,000대를 판매한다는 목표와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찌아이아시는 2,800m 높이의 산을 지닌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살기 좋은 시골 동네입니다. 또한 상파울루와 리우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 다국적 기업의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고 있어 떠오르는 산업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4년 월드컵이 개최되었고, 2016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라,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건설장비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열정만큼 뜨거웠던 브라질에서의 인턴생활”

브라질에 다녀온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브라질의 여운에 젖어있는 걸 보면 그 곳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다가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던 때, 큰 준비도 없이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머나먼 남미 대륙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인턴 생활은 제게 있어 ‘SERENDIPITY’, 뜻밖의 행운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대학생활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까’,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등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경험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배워올 것이 많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포르투갈어도 공부하고, 영어로 소통하며 일을 배우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결정은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 제 삶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처음 ‘과룰루스’ 공항을 나와 온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공기가 첫 시작의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을 편안히 해주었습니다. 높고 광활한 브라질의 하늘과 찬란히 빛나는 햇살이, 장시간의 비행과 걱정투성이의 한국생활을 뒤로하고 처음이란 행복한 기분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업무에 임하고 소통의 난관도 극복해갔습니다.

“언니이지만 친구같이
편한 세명 언니,
브라질에서 묵한
보통들이 한국에서
꼭 해요.”
김 윤

제게 있어 브라질은 인생에서 소중한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과 자연을 품는 그 곳, 브라질에서 피어나는 새 열정과 희망을 느낄 수 있던 브라질 사람들의 눈망울이 눈물겹게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글로벌인턴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이니 꼭 쟁취하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진정성 있는 교류와 글로벌 마인드로”

브라질 ‘과룰류스’ 공항에 도착하던 날, 후덥지근한 기후 그리고 한국에서 볼 수 없던 그 모든 것들의 설렘과 흥분으로 브라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브라질에서 크게 2가지를 배우고 얻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어디서든 다 한 가지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동일한 관심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왔던 제게 브라질에서의 삶은 새로운 자극이었습니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 문화, 생각까지 다른 그들과 정을 나누기가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퇴근 후, 룸메이트와 ‘어떻게 그들과 잘 어울릴까’ 하고 함께 고민하며 늘 내린 결론은 ‘내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는 언어로 손짓, 발짓은 물론 때론 지나친 오버로 자괴감에 잠을 설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적극적인 제 노력은 그들의 마음에 전달되었고, 그들도 또한 저를 진실로 대해주었습니다. 브라질 친구들의 집에 초대해주었고, 같이 파티도 하는 등 서로 하나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 제 생애 있어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영향이 꼭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둘째로 크게 얻은 선물은 글로벌 역량, 글로벌 마인드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타 문화를 존중하고, 한국의 문화를 그들에게 전달하여 문화차이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목적으로 협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라는 것을 체득하였습니다.

“이제 인생이 열심정성이
래환오빠!
브라질을 유혹했던
그 매력으로
원하는 좋은 곳에서
취업까지 고고씽!”
김서윤

끝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을 제 지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에 강렬함을 느꼈고, 그 경험은 나중에는 지금처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젊은이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선운아!
브라질에서 보여줬던
활발한 모습 앞지 말고
앞으로 하는 일
모두 다 잘 되길
나라를 위해 화이팅!”
김래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 글로벌인턴 프로그램”

브라질에서의 인턴생활은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년 전, 프랑스 대학을 단기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경험이 해외에서의 생활을 다시 꿈꾸게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아닌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국가에서도 잘 적응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국가의 현지회사에서 실무가 가능할 지를 걱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 이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은 저에게 도전이고 기회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브라질 법인 AS부서에 배치되어 주요 업무인 번역 외 부서 내 다양한 업무과정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제게는 과외나 학원강사란 일을 제외하고는 첫 직장생활이었 습니다.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오기 전,先輩들이 기업문화와 업무 흐름에 미리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확실하게 배워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해외에서 글로벌스테프로 일하는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운 목표를 충분히 확인하고 성취함과 그를 통해 또 한 차례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중한 친구들도 얻었습니다. 지금도 현지에서 우정을 쌓은 동료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하고 소식을 나누고 있으며, 오랜 인연으로 이어갈 참입니다. 브라질법인에 있는 후배 인턴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할 때면 그 모든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리워져서 다시 브라질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제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내어 달려볼 생각입니다.

김 윤 연세대학교/아동가족학



“윤이에게~
정 많고 똑부러진 윤아!
나이는 어리지만
항상 어른스런 널 보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
브라질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자.
사랑한다! 뽀!”
권세명

“Tá bom(따봉), 브라질”

우리에게 ‘따봉’이라는 말은 매우 친숙합니다. 그 표현은 포르투갈어로 ‘Tá bom’ 이라고 ‘매우 좋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Tá bom’ 의 ‘bom’이란 표현을 통해 안부를 전할 때, 의견을 물을 때,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상대방이 괜찮은가를 먼저 물어봅니다. 모두가 좋은 상태여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들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인터으로 업무를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동의 목적이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고 고로, 자신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동료들은 퇴근을 철저히 지키고 퇴근 후에는 자신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여가 활동을 즐깁니다.

이렇게 행복을 중시하는 브라질이 근래에는 ‘Bom’(좋지)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사회 도처에 뿌리깊게 자리한 빈부 격차와 축적된 불만으로 인해 잦은 폭동과 시위를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또 다른 슬픈 아이러니였습니다.

지난 인턴기간 동안 깊게 깨달은 것은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여유와 안락함, 친구를 초대할 수 있을 만큼의 후덕한 인심과 경제적인 여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Tá bom’한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현지 직원의 집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가족은 그리 여유롭게 사는 것도 아닌, 가족 수가 많아 항상 취하는 것보다 나눠야 할 것이 더 많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초대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성심 성의껏 대접하였습니다. 그 가족들을 통해 진정한 삶의 여유와 가정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만 같던 인턴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다시 한국에서 제 꿈을 위해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삶에 대한 행복과 여유로움 그리고 나눔의 중요성과 진정한 가치를 마음 속에 간직하며 살고자 합니다.



“Boom Boom clap!
핑키야.
그 동안 개알같이
재미있던 일이 많았지?
좋은 기억만 가지고
추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다 잘되자~ 힘내!”
이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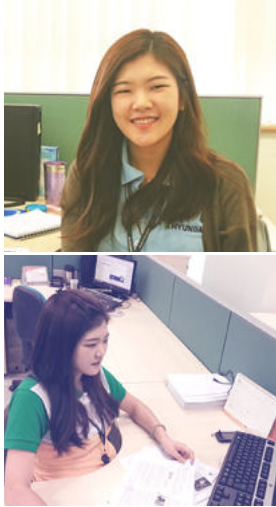
“경험은 최고의 자산”

4개월여 간 인턴 생활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내용을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생산라인의 공정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지켜보며, 설계원리 또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국제 사회에서 종합적인 사고, 폭넓은 시야, 전문적인 지식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해외에서의 생활은 환경, 언어, 문화로 인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먼저 다가가 물어보기도 하고, 모든 일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하는 동료들이 저희를 마치 한 식구처럼 감싸주고 걱정해주었습니다. 피부색과 인종, 문화는 서로 달라도 따뜻한 마음은 같고, 열린 소통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해외에서의 생활은 체면과 관계없고, 지식과 관계없고, 인격과 관계없고, 자기 본인의 의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방문한 FOREST EXPO 2014 에서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건설 장비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으며, 나라별로 환경에 맞게 다양한 장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관과 기능이 비슷한 장비들을 보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인 사람은 없으므로 인턴으로서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턴을 경험함으로써 위기에 부딪쳐 극복하는 방법, 의사소통 하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경험은 최고의 자산이며, 사회에서 직접 접해본 경험이라는 위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전적인 자세로 매사에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좀 더 견고하게 다듬을 수 있던 기회”

현대중공업 브라질법인의 구매·통관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무는 물론이고 인간관계, 직장생활 등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하고, 저만의 강점도 발견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매·통관부서에서 저는 통관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브라질은 통관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거나 그때 그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또, 각종 금액을 정산하여 액셀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르투갈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사이트에서 브라질의 중장비 시장에 관련된 기사를 읽고 시장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와 번역 업무도 맡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브라질의 통관 절차, 중장비 동향 등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인턴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와 현지 법인의 특성과 같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해외에서 파견 근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던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 사업장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 법인의 경우, 한국인 20여명을 제외한 400명이 모두 현지인이어서 브라질 기업문화의 특색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또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현지 특성상 영어만으로는 소통이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저는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들과 소통하고 관계하며 현지인들의 삶을 한층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지도, 항상 모든 일이 잘 되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개월 반의 시간으로 인해 한층 더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었고, 제 모난 부분들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항상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좌증 섞인 말투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동역원으로써
돌때는 화끈하게
때로는 술선수범하는
브라질 인턴 5기의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멋진 너였다.”
박민기



“잊을 수 없는 리오 데 자네이로 여행”

리오 데 자네이로는 세계적인 관광지라 그런지 부유함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고가의 백화점, 외제차, 부유한 관광객 등, 하지만 시선을 달리하여 한 블록만 뒤로 돌아 들어가면 길거리의 걸인들이 보였습니다. ‘빵지 이수까’에서 야경을 보면서 화려한 빛을 뿜내는 호텔과 대조적으로 산등성이를 따라 다닥 다닥 붙어있는 ‘파벨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라질의 심각한 빈부 격차를 실감하며 브라질의 사회문제들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휴양지에서 브라질 사람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들 특유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말을 맞이하여 해변에서 햇살과 함께 여유를 즐겼고 해변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단위로 상파울로에서 ‘히우’로 여행 온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브라질 사람들에서 풍겨지는 특유의 여유로움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빵지 이수까’와 ‘예수상’을 다녀오면서 아름다운 경관에도 놀랐지만 더 놀랐던 것은 브라질 사람들의 인내와 노력이었습니다.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예수상’은 지금까지도 건재 하였고, 100년 전부터 시작된 ‘빵지 이수까’를 향한 브라질 사람들의 애정은 목조리프트를 시작으로 77명을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리프트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훌륭한 관광 홍보 활동은 세계의 사람들을 불러들여 여행하게끔 하는 ‘꿀독없는 공장’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히우’처럼 우리나라의 훌륭한 유산들도 세계적인 명소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히우’의 경이로운 광대함과 브라질 사람들의 자연 유산을 보존하는 노력과 열정이 더욱 그 곳을 아름답게 만든 것 같습니다.



RUSSIA



Ussuriysk

김준련

한상우

ABOUT Hyundai Russia Khorol Agro

“연해주 우수리스크 농장”

현대자원개발 연해주농장은 2003년 Martin & Irina Tate 농장을 구입하여 ‘Khorol Zerno’로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현대중공업이 농장 지분을 인수하였고 2010년에는 Hyundai Khorol Agro(이하 현대 하롤 아그로)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연해주농장의 영농 다양화 및 규모 확대를 위해 Hyundai Mikhailovka Agro(이하 현대 미하일로브카 아그로)를 신설하였고 2012년에 ‘현대 하롤 아그로’라는 낙농사업분야까지 확장하여 진출했습니다.

‘현대 하롤 아그로’의 관리면적은 5,367ha이며, ‘현대 미하일로브카 아그로’의 관리면적은 3,353ha입니다. 총 운영면적 9,651ha 가운데 2013년의 파종면적은 6,900ha이며, 잔여 농지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작을 위해 격년으로 휴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료용 옥수수과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해주에서 가장 깨끗하고 최신식 설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현대자원개발 목장은 새로운 소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중이며 새롭게 사육되는 소는 바로 ‘젖소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종인 독일 품종 ‘홀스타인’입니다. 암소는 연평균 5000~6000kg의 우유를 생산하며, 우유종 중 가장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연해주 농장은 향후 해외 농업 개발사업의 전진기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통해 식량안보에도 기여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익성을 강화하고자 3만톤 곡물 생산 및 저장 능력을 갖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김준련 경북대학교/노어노문학



“진귀함과 REAL함, 그 이상의 경험과 터닝 포인트”

현대자원개발 러시아 연해주 법인에서 인턴생활을 하며 직접 접하기 힘든 영농산업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농사짓는 사업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무는 건축, 정비, 통관, 법, 세무 등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직접 번역해보고,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물이 자라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등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전반적으로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현지 사업에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농번기에는 특성상 휴일이 없이 바쁘지만, 더불어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 눈코 뜰새 없이 분주했습니다. 세관을 비롯한 각종 관공서의 느린 업무처리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그때마다 현지 직원들이 의기투합하여 유연하고 확실 하게 상황을 해결해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막연했던 영농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었고, 해외에서의 사업 운영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인턴생활은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업무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에서 벗어나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즐겨라’라는 상무님의 조언은 예전의 안일했던 제 삶의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조언을 가슴에 담아 앞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삶을 즐기고 도전할 것입니다. 최근에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했고 평소 두려워 워서 도전하지 못했던 수영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틈틈이 러시아어 통역을 하며 부족한 실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비록 러시아 파견기간이 작물 추수기간보다 일러서 수확하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도전하는 제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것이 글로벌인턴으로서 추수한 가장 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련아!
너와 함께 한
연해주는 잊지 못할거야!
내일을 기다림이라
오늘도 파이팅!!”
한상우



“형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김준현

“꿈만큼이나 드넓은 땅, 그 곳!”

공항에서 내려 현대자원개발 연해주 농장으로 가면서 ‘러시아, 이곳은 정말 넓구나’ 하면서 놀랐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옥수수, 콩밭인 법인 관리의 경작지를 보고는 그 광대함에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경이로운 광대함에 가슴이 탁 트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생활에 비하면 열악하게 살아가는 현지 사람들의 얼굴에 여유가 그려져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 짐작해봅니다.

그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 삶에 약간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그 광활함만큼이나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한국이란 작은 나라에 태어났지만 마음 속에는 전 세계를 담고 살아갈 큰 설렘과 포부를 이번 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인에서 제가 주로 한 업무는 번역과 재고정리였습니다. 이전 까지 러시아 사람들과 업무적인 대화를 거의 해보지 않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번역은 한국어로 읽어보아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어려운데 러시아어로 번역하러니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움이 4.5개월 동안 약 1,000여개의 계약서와 공문 등을 읽으며 실질적인 현지 업무감각을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고정리를 하면서 현장에 있는 직원, 사무실에 있는 직원, 그리고 현지직원들을 관리하는 한국직원들간에 소통이 잘 되어야 일이 잘 풀리는 것을 깨닫게 되어 언어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제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1+1은 2+알파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기계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그에 앞서 항상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겠다고 다짐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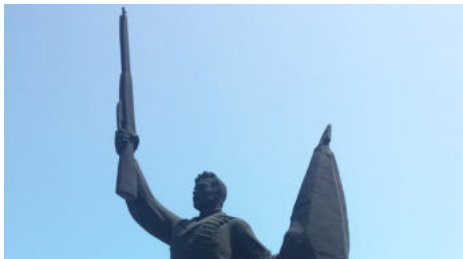
이제 사회에 나가 일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곳에 있든지 글로벌인턴을 하면서 배운 경험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며故 정주영회장님의 신화를 뒤잇는 대한민국의 큰 인물이 될 것이라 다시 한 번 다짐해봅니다. 한상우, 스스로 제 자신에게 건승을 기원해봅니다.

문화탐방



“한국의 역사가 담긴 우수리스크”

인턴생활을 시작한 뒤 러시아 친구에게 우수리스크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곳은 작고 조용한 도시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는 작고 조용한 도시겠지만 발해부터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유적지가 있는 우수리스크는 한국인에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해의 유적지는 성터와 절터로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성터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견고한 돌로와 절벽으로 단단히 만들어진 성벽을 볼 때 이것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긴 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이 곧 우수리스크에서 높은 곳에 위치해있는 발해의 옛 성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해 성터에서 멀지 않은 ‘수이푼’ 강변에는 대한 제국시절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던 독립운동가 이상설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내지 못하여 혼자라도 조국으로 갈 수 없다는 유지를 받들어 화장되어 ‘수이푼’ 강변에 유해가 뿌려졌고, 그 넋을 기리기 위해 2001년 한국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이 ‘유허비’(추모비의 일종)를 세웠습니다. 또한 우수리스크 시내에는 항일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생가와 ‘전로한족 중앙회’ 결성 장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유적지들이 우수리스크는 결코 한국인들에게는 이 곳이 절대 작지 않은 도시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표가 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언젠가 한 번 꼭 가보고 싶었던 블라디보스톡을 인턴기간 중에 방문하였습니다. 우수리스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많은 배들과 높은 지대 위에 위치해 있는 여러 건물 등은 ‘부산’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러시아 양식의 건물들이 도시를 메우고 있어 색다른 매력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쩍 따뜻해진 5월에는 해양공원에서 바다를 보며 먹은 ‘곰새우’가 정말 별미였고 간혹 향수병으로 한국식당에 방문하는 기회 등은 아직도 포근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그 기회 자체로 설렘이 가득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과 가까운 곳이라 여행에 대한 기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해주는 한국인의 과거와 미래의 역사를 국경 밖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한국의 고적 같은 외국임을 실감하며 다시 한 번 우리의 아픈 과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VIETNAM



Nha Trang

김호준

박지혜

신영훈

이미현

조혜림

ABOUT Hyundai Vietnam Vinashin Shipyard

“과거 선박 수리사업에서 직접 선박 건조까지”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베트남의 아름다운 휴양지 나짱(Nha Trang)에서 1 시간 떨어진 닌호아(Ninh Hoa) 마을에 위치한 현대비나신 조선소는 과거 베트남의 국영 조선소인 Vinashin을 현대미포조선에서 인수하여 각각 30%, 70%의 지분을 가지고 1996년 설립된 국내 조선업계 최초의 해외 설립 조선소입니다. 과거에는 선박 수리사업을 하였지만 현재는 현지인의 높아진 숙련도와 현대미포조선의 고급인력 및 기술력이 투입되어 Bulk 선박부터 PC선까지 직접 건조하고 있습니다.

HVS를 구성하는 근로자의 수는 약 4000명으로 이들 중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75명이며 그 외는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사무직, 엔지니어 부서마다 한국인 관리자의 철두철미한 관리, 감독하에 현지인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엔지니어의 경우 한국인 과장, 차장, 부장 등의 관리직 임원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현장 관리자의 경우는 현대미포조선 본사에서 파견된 한국 직원들이 교관으로 배정되어 현지의 현장직원들을 지도, 교육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HVS는 본사의 수주 주문에 따라 선박을 건조합니다. 주로 Bulk 선박을 건조하였지만 최근의 조선경기의 침체로 선박 수주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Bulk선박을 주력으로 건조하였지만 현재는 더욱 더 고부가의 가치를 창출하는 선박인 PC (Product & Chemical Tanker)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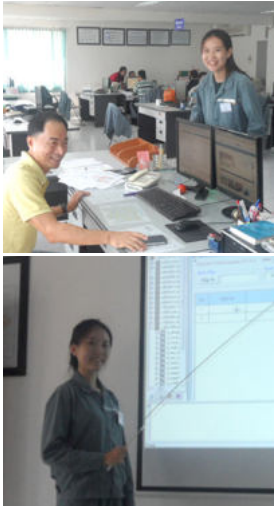
“넌 참 좋은 친구야.
나도 참 좋은 친구였지?
다들 참 좋은 친구들이다.
그렇지?”
신영훈

“또 다른 하나의 가족”

무뚝뚝하지만 묵묵히 챙겨주시는 아버지 같은 이사님, 조금은 깐깐하지만 섬세하고 모든 말씀들이 마치 어머니 같았던 부장님, 삼촌처럼 저 자신이 잘되라고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시는 과장님, 눈빛만 마주쳐도 어떤 장난을 칠까, 먹을 것 하나라도 있으면 동생 하나 더 챙겨주려는 형, 누나 같은 현지 직원 분들. 베트남에서 언어와 음식, 기후 등 한국과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서원들의 도움 덕분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다가와 “내가 도와줄까?”라고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준 그 분들이 있어 4.5개월의 긴 시간을 항상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추억으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스펙, 월급 등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인턴을 하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 이런 이유와 함께 외국에서 생활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산나눔재단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인턴을 마친 지금 생각해보면 훨씬 소중하고 큰 것을 얻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김호준’ 제 자신에 대해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 내면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채울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하는 아쉬움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귀국했을 때, 지금 하는 일들을 열심히하고 준비해서 머지않아 베트남에 돌아가 그들과 다시 웃으며 술 한 잔 기울이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다 잘하고
배려심 많은 우리 지혜!
언제든지 제일 크게
호응해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처럼 다독여주고...
덕분에 힘든 타지생활
이겨낼 수 있었던 거 같아~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우리 인연 평생 이어가자!!^^”
김호준

“잊을 수 없는 골리앗 크레인 탑승 경험”

조선소를 상징하는 골리앗 크레인을 탑승한다는 것은 제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공에서 내렸을 때는 아찔했지만 다시 보니 현대비나신 조선소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골리앗 크레인 조종수가 일하는 위치는 도크 위 지상 100m 상공의 조종실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작업실 같았고 까마득한 아래를 보며 최대 450t 정도의 대형 블록을 옮기는 것이 경이롭게 보였습니다. 조종수의 섬세한 움직임이 선박을 만드는데 중요하다라는 것도 깨달았고, 100m 높이에서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 보니 마음도 몽클해지고 머리가 맑아진 듯했습니다.

더불어, 초보자들에게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용접기술 중, 간단한 Co2 용접실습도 하게 되었습니다. 초보이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너무 기뻐했습니다. 용접이란 1%의 손재주와 99%의 노력이란 말을 가슴에 새기며 꾸준히 연습하는 현지 작업자의 모습에 인내심과 끈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진정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개발에 있어 결함 없는 코드를 나타내기 위해 수많은 변수와 조건들을 고심하고 끊임없는 테스트를 거쳐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4.5개월을 압축해서 이야기 한다면 따뜻함, 열정 그리고 끈끈함, 이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따뜻했던 팀원들, 업무에 대한 열정, 인턴 동기들 간의 끈끈함, 물론 그 외에도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또한, 인턴이지만 깊은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자세를 배우고 제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기회와 도전도 이번 경험처럼 멋지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유인력과 같은 부장님의 호출과 가르침”

인턴 생활 중, 저를 엄히 가르쳐 준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현지 부장님으로서 요직에 계신 만큼 항상 세심하게 모든 일을 챙기셨습니다. 어느 날 제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셨는데 업무용 보고서를 쓰는 것은 처음이어서 잘은 모르지만 열심히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탈이 나서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팠지만 역할에 대한 의무감에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로 갔습니다. 사무실을 도착하자마자 급히 부장님이 호출을 하셨습니다. 아픈 몸이었지만 만유인력처럼 제 몸은 부장님께로 옮겨갔습니다. 부장님은 제게 보고서 진행 경과와 몇 가지 작성 형식에 대해 지적해주었습니다. 부장님의 엄하지만 세심한 조언으로 인해 아픈 마음과 몸은 금새 사라졌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기까지 부장님은 몇 번을 거쳐 아니, 아마도 수십 번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드디어 보고서를 다 마무리할 때는 부장님께서 믿음직스러운 미소와 함께 “영훈씨,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짧은 한 마디였지만 그 말은 제 가슴을 벅찬 감동으로 채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사장님과 상무님께 바로 올릴 중요한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큰 경험을 할 기회를 주신 부장님께 너무 감사했고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만큼 저를 신뢰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더불어, 반복되는 기본 업무에서 ‘인내밖에 배울게 없다’란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소중한 가치와 인정을 받게 도와준 글로벌 인턴 프로그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훈오빠,
인턴생활 동안
많이 웃게 해주셔서 고마워.
특히 동물만 보면 뛰어가던 모습
잊지 못 할거야.
복약해서 학점 꼭
올리겠다는 목표 잊지말고!
나도 박달대에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할게!”
박지혜



“골리앗같이 크나큰 경험과 배움으로 인생을 수놓다”

제가 현대비나신의 교육훈련부에서 맡은 업무는 한국어 수업, ‘교육 Needs’ 조사, 번역 업무 등이었습니다. 현지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교육부 부장님은 제 전공을 업무에 접목시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맡은 업무 중, 신입사원의 Lifeplan 설계를 위한 설문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만큼 매우 보람된 일이었고 실무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체 직원들의 ‘교육 Needs’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고서를 영어로 작성한 후,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수정하는 업무는 생소했지만 실력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인과 파견 직원 간의 협력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지 직원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퇴근 후, 회사 앞에서 기울이는 맥주 한 잔의 여유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특별한 추억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쏟아지는 별과 달이 수놓아져 있는 수영장에서 연습한 덕분에 맥주병이던 제가 자유형을 마스터할 수 있게 되었고 주말에는 틈틈이 동료들과 또는 베트남에 잠시 여행 온 친동생과 여행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을 되돌아보는 진정한 자유시간이었습니다.

현지에서 모든 직원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저는 값진 인턴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여유가 공존하면서도 풍부한 가르침과 사람까지 얻을 수 있던 그 기간이 제게는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시간으로 인생에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현언니!
다들찾아서 가이드로 최고였어요!
역시 우리 미현언니 ♥
언니를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존경합니다.
취업해서 '나짱' 다시 가요!”
조혜림



“내 꿈을 찾아가는 소중한 경험”

베트남으로 인턴을 가기 전, 저는 ‘제가 베트남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막상 현지에서 인턴으로 생활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꽤 많았습니다. 경리부 인턴으로 번역 업무,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베트남 직장생활 체득 및 문화 체험 등 많은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어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베트남 직원들의 업무를 돕기도 하고, 퇴근 후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베트남 현지 직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부서의 직원들끼리 야유회를 가는 문화나 여유 등이 아직도 인상깊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말이면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지만 베트남 직원들은 주말을 이용해 자주 야유회를 다녀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도 함께 야유회를 다녀오면서 직원들과 한층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이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다시 없을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팀 귀염둥이 혜림아!
너랑 지혜가
오빠들을 잘 관리해 준 덕분에^^
베트남 생활을
우리 모두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혜림이,
너가 타 준 커피맛이 그립다.
덕분에 기운 얻을 수 있었어!
항상 화이팅이야!!”
이미현

또한 아산나눔재단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저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학생으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기 바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느라 정작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저의 꿈을 찾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쉬운 방법과 방향만을 선택하려 하고,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포기했던 스스로를 반성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탐방

“베트남의 숨겨진 보석 나짱(Nha Trang)”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나짱은 현지인과 관광객의 여유가 깃든 도시입니다. 따가운 햇살을 피해 새벽 5시부터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거나 배드민턴을 치는 현지인들을 보면, 그 여유가 관광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곤 했습니다. 바빠 구경할 관광지가 있지는 않지만, 그저 해변에 누워있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인턴들은 늘 베트남 현지인의 일상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현지인의 집에 머물며 그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하거나, 주변 놀이공원 및 관광지로 계획을 짜서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원숭이섬으로의 여행은 인턴들 손에 든 바나나를 보고 달려든 원숭이 떼의 혼란으로 정신 없었지만,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퇴근 후, 해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사람들과 보냈던 그 시간들은 단연컨데, 인턴들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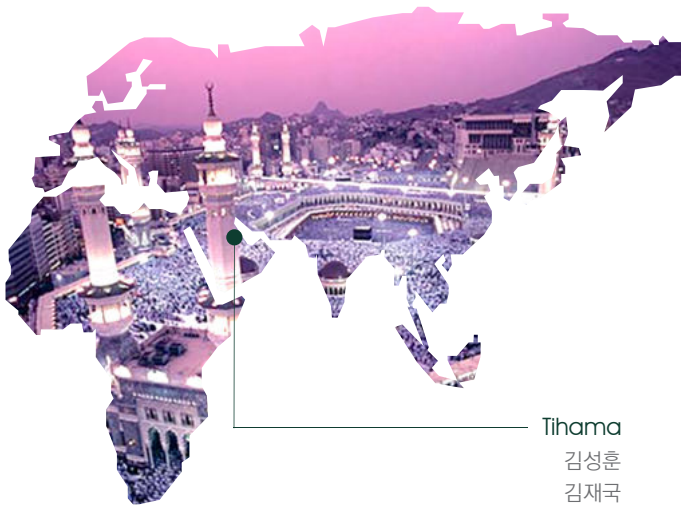
“영원한 봄의 도시 달랏(Da Lat)”

해발 1,400~1,600m의 고원지대로 ‘영원한 봄의 도시’라고 불리는 달랏은 베트남의 대표적 신흥여행지입니다. 현지 부장님의 배려로 현지 주재원의 휴가에 인턴들도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더위를 피해 편히 쉬다 올 수 있는 일상적인 휴가일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휴가 전, 부장님은 저희 인턴들에게 베트남돈 500만동(한화 25만원)을 건네주시며 휴가일정 동안 입장료와 식사비를 모두 관리하며 가이드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달랏에서의 휴가는 또 다른 도전과 경험이 되었습니다. 달랏 화원, XQ자수박물관, 사랑의 계곡 등 관광 내내 이사님과 일정을 협의하고, 장소를 안내하고 다시 만날 약속을 잡는 등 열심히 가이드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정보를 잘못 이해한 현지 드라이버가 길을 잘못 들어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단따라’ 폭포를 갔을 때는, 다 구경하기도 전에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모두가 모노레일을 타고 비를 훌쩍 맞으면서 올라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일정을 마칠 즈음, 이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이드비용을 따로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농담반, 칭찬반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덕분에 배움도 가득한 달랏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휴가 후, 저희 모두 부장님과 이사님, 상무님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고민을 털어놓으며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의 도전이자 한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여행과 휴가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SAUDI ARABIA



Tihama

김성훈
김재국
김효수
이상형
이호준
임동균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Tihama

“성공적인 현대중공업 TIHAMA 현장”

현대중공업 사우디 아라비아의 Tihama현장은 영국의 한 발전회사인 ‘Tihama’사가 사우디 Aramco에서 발주한 열병합발전소 증축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Tihama’사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벨기에 회사를 OE(Owner Engineer)로 두고 현대중공업을 EPC Contractor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5월 3일 착공하여 2015년 4월 30일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3억 달러라는 큰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Tihama Stage 2 Cogeneration Project를 성공리에 마친 현대중공업에 다시 발주한 것을 보면 현대중공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ihama 현장은 총 3곳으로 해안부근에 위치한 JGP, 내륙에 위치한 SGP와 UGP가 있으며 각 현장 간의 거리는 50~200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JGP는 해안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고온 다습한 기후이며 SGP와 UGP는 내륙에 위치하여 고온 건조한 기후를 나타냅니다. 숙소도 현장 별로 JGP현장의 Rahima Camp, SGP와 UGP현장의 Hofuf Camp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대추야자가 익어가듯,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현대중공업 Tihama 현장의 열정은 불철주야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인턴을 마치고”

멀게만 느껴졌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갔다 온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쉽게 갈 수 없는 나라인 만큼 좋은 추억과 경험이 많았습니다. 많은 현지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제 꿈을 조금 더 확장하고 견고하게 만들어나갔습니다. 막막하기만 하던 제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희망하는 전기 관련 부서에 배치받아서 더욱 유용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건물(빌딩, 주택, 관공서, 공항, 공장 등)에는 ‘배전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한국전력 등의 전력회사로부터 들어오는 전기에 관한 용량 등을 계산하여 사용량 이상의 전기가 들어오면 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문제가 생길 시에는 자동적으로 전력을 중단하여 기기 및 전기 시설물에 생길 피해를 막아주고 미연에 인명 피해와 금전 피해를 막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배전반’에서 사용되는 많은 부품과 소자의 테스트를 제가 직접 담당하며 국내 현장에서도 직접 도움이 될 진귀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글로벌인턴으로 일하는 동안 항상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 긴장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늘 시간이 부족한 현장에서 제 작은 노력과 열정이 도움이 되었다는 과장님의 칭찬과 격려는 제게 최고의 자양강장제 같았습니다.

“과거하신 성훈이 형과
고려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아! 알라시여!!!”
김재국

제가 경험한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모든 청년에게 권하고 싶은 최고의 경험이자 기회였습니다. 불분명한 제 꿈을 명확히 그려보고 확실한 자신감을 심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책임감, 성실함, 순발력 삼박자를 이룬 경험”

인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값진 경험 중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회사에 소속됨으로써 해야 할 업무로 인해 제 노력과 성취 여부에 따라 같이 일하고 있는 작업자들에게 이익과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는 것이 조금은 더 실감났고 그에 따라 성실함도 같이 함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 부장님께서 제게 ‘Sump Pit’(일종의 콘크리트 박스)을 굴착부터 ‘타설’(콘크리트를 어느 공간에 부어 넣는 것)까지 맡기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작업자들에게 세세하게 작업 지시를 하고 경과를 지켜보며 일의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일이어서 더 부담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더운 날씨에 힘이 많이 들었는지 작업자들은 제가 잠시 현장을 비우면 굴착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주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의 진행상황이 늦어져 다른 공정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모두가 제 책임이 되어버릴 것 같아 식은 땀이 난 적도 많았습니다.

항상 공사 현장에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서 있으면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힘들어하는 현지 근로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의 전략을 썼습니다. 알맞게 일이 끝나고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 된다고 하는 부장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과 함께 큰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항상 웃으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인 재국!”
김성훈

또한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허가증을 받는 것도 제게 주어진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중요 물품을 실은 덤프트럭을 공사 현장으로 들여보내야 했습니다. 덤프트럭과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고 Service Center에 갔는데 서류는 덤프트럭 뒤에 회사와 차량번호 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 당일 현장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 덤프트럭이었기 때문에 당장 들여보내야 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현장에 들어가 A4용지에 회사와 차량번호 주기를 만든 후, 직접 페인트 칠을 하는 순발력과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소한 일들이지만 처음 경험한 저로써는 굉장히 큰 책임으로 다가온 순간순간과 그것을 달성한 특별한 경험이 변화된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김효수 영남대학교/기계시스템학



“문화적 차이가 만든 새로운 깨달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꼈던 4.5개월의 이야기를 A4용지 한 장에 다 담을 순 없겠지만 지금부터 저의 ‘사우디아라비아 체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오르는 태양, 비옥한 사막, 엄격한 문화 등 설렘보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4월 2일,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미리트’ 항공에 올랐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4월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도 완만한 기후와 주변 시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숙소에서 기분 좋은 첫 날 밤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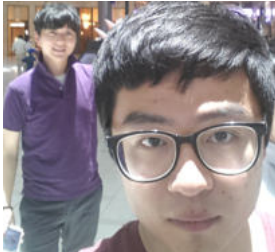
시공 현장은 차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아침 6시에 일과를 시작했기에 새벽 4시 반에 기상하는 생활이 적응하기 가장 힘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소속된 공동체, 그리고 직원과 상사들과의 생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상해보면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자유를 만끽하던 대학생과는 달리, 행동 하나하나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기에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평균 45도의 무더운 날씨와 처음으로 접하는 전문적인 업무는 적응하기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잘 모르는 제게 많은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보다는 항상 배움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고 힘든 생활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응을 힘들게 했던 부분은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종교로 인해, 문화 생활에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를 접하게 되니, 한국의 제 지인들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바쁘게 달려온 26년을 되짚어볼 수 있는 여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파견 근무가 끝난 지금,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무 경험을 통해 제가 원하는 적성을 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5개월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제5기 글로벌인턴 동료들과 제 자신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고 모두 그 열정으로 무엇이든 도전하고 이뤄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꿈이 확고한 친구야.
수고해라.”
이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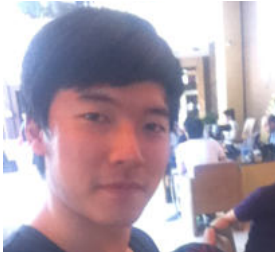
“이상형, 자네 해봤어?”

이번 인턴생활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모든 일은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투입되어 자재 반입 및 반출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수주공사는 발전소 증설공사로써 발주회사인 Aramco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하여 매번 자재반입에 있어 검열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라마단 기간에 Aramco가 오전 근무만 하여 오후에는 자재 반입이 안되었습니다. 기존의 매뉴얼은 오전 자재반입을 통해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만으로 한계가 있었기에 이 시기, 저는 미리 검문소 담당자를 찾아가서 반입 목록과 사진을 보여 주고 안정성 검사를 사전에 받아 그 이후부터는 오후에도 자재를 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목팀에 있으면서 매주 회의 때 사용하는 토목공정 진행표를 만들고 콘크리트 물량을 세세히 계산을 하여 현장에 일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랜트 공사의 특성으로 기계 분야의 일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기계도면이 낯설었지만 반장님이나 부장님을 따라다니며 도면을 숙지하여 나중에는 철골 구조물 자재 운송 등의 일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회에 대한 제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현장 직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4.5개월 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낍니다. 이 기회를 통해 더욱 커가는 제 꿈과 미래가 앞으로 펼쳐졌으면 합니다.

“현직인을 닮은 외모만큼
똘똘한 친화력!
사우디가 당신을
또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김호수



“사우디 티하마팀의
독주기관차 이호준~!
하고자 하는 일을 향해
전진하자!”
임동균

“자신이 처한 곳에서 진정 필요한 사람이 되자”

4월 1일, 그토록 원하던 글로벌인턴의 일원으로 사우디에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 두바이 → 바레인 → 사우디 여러 나라를 경유하여 도착한 사우디아라비아! 말로만 들던 사막과 호화로운 건물들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들이 눈 앞에 펼쳐졌으며, 사막의 상징인 낙타들도 보였습니다. 현장은 ‘주하이마’에 위치한 JGP 라는 현장, ‘우스마니아’에 위치한 UGP현장, ‘쉐드검’에 위치한 SGP 현장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UGP현장의 인턴으로 선발되었고 통행증이 나오기 전까지 잠시 JGP현장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생활한 JGP에서는 업무에 대한 현장의 사전교육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JGP에서는 주로 여러 직원들이 돌아가며 공사의 시스템과 각각의 담당업무를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며, 그래서 티하마 공사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후에는 통행증이 발급되어 UGP로 이동하여 현장 투입인원이 너무 부족한 터라 직접 일을 해보는 반가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회에 대한 반가움도 잠시, 업무는 호락 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30분에 기상하여 4시 20분에 출근 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여 7시에 숙소에 도착하는 그런 타이트한 생활과 자재관리, 조달, Steel Structure 설치 및 서류업무, 중장비 배치 등 수많은 업무들은 매우 벅찬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 동안 느꼈던 제 정신 상태를 마치 현장에 투입될 때 안전복장과 장비를 철저하게 무장하는 것처럼 톨 톨 무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맡은 업무는 최선을 다해 해결 하였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반장님 밑에서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 습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지, 사회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자연히 따라왔습니다. 제 자신도 점점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고 소장님은 UGP 현장인턴들의 파견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것을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UGP에서의 경험은 제 자신이 있는 그 곳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방법과 그러면 어떤 감동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주인의식과 글로벌마인드의 적절한 조화”

사우디아라비아 Shedgum 현장에서 전계장 인턴으로 업무를 수행한 4.5개월은 새벽 4시의 기상과 함께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정말 빡빡한 스케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근무 강도, 그리고 기대와는 다른 업무들로 처음 한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문화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했고 학생이 아닌 인턴 신분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을 맡다 보니 마음가짐이 남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1달 후에는 전계장 시공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고 두 달 뒤부터는 Shedgum 현장의 인원 및 장비 관리를 도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1달 후인 3달부터는 발주처 관계자와 만나 현대중공업의 인원, 자재, 장비 투입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업무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중요한 업무들을 맡게 되었고 부담감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Tihama 인턴 동기들과 서로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며 힘을 실어줬고 그렇게 4개월 반의 알찬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Tihama 현장의 인턴들은 전부 얻은 바가 많다고 확신합니다. 공정상황은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현장은 인력이 적었기에 저희들에게 일을 주며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은 많았지만 인턴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배우며 현장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글로벌
논개 정신으로
2014년 하반기
취업을 안고 뛰어들어!”
이호준

현재, 한국에 귀국하고 이 프로그램을 제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볼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관련 직무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고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재! 두바이로”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인턴들에게는 두바이가 있었습니다. 집에 대한 그리움이 슬슬 커질 때쯤 함께 파견된 6명의 인턴들과 두바이로 향했습니다. Tihama 현장에서는 3개의 작은 현장 별로 2명의 인턴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2달 동안 보지 못했던 인턴 친구들과의 재회이자 함께한 여행은 더욱 반가웠습니다.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을 땐, 처음 경유해서 들릴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직장인들이 여름철 휴가시즌을 그렇게 기다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날 간 곳은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입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의 숙소 식단에 길들여진 저희였기에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먹고 싶은 것을 많이 먹기’였습니다. 그 때 먹었던 스테이크의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두바이 몰’에 갔습니다. 명성에 맞게 입구에 커다란 수족관이 있었고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은 ‘두바이 몰’에 있는 실내스키장에서 추위를 느끼지 못했던 2개월을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 맘껏 추위를 즐겼습니다. 밤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광장도 갔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광장에 있었고 ‘세계의 메카, 휴양의 천국 두바이’ 라는 말을 절실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휴가는 너무도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두바이 여행을 통해 다시 활력을 충전할 수 있었고 남은 2개월의 인턴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던 이런 여행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더욱 도와준 것 같습니다.



SAUDI ARABIA



Jeddah

박민서
박정훈
백승훈
오겨레
이명준
정수원
천지원
최완수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Jeddah

“뜨거운 햇빛 아래 바쁘게 움직이는 제다 화력발전소”

36도의 뜨거운 햇빛과 시원한 바람이 동시에 부는 곳이 바로 제다 화력발전소 현장입니다. 공사 금액이 무려 3.5조원에 육박하는 제다 플랜트는 완공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전력의 5%를 생산하는 사우디 국가의 중요 발전시설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의 이름을 내걸고 기자재 제작, 공급, 건설, 시운전까지 일괄 담당하는 턴-키(TURN-KEY)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곳의 하루는 새벽 5시반에 ‘람’과 함께 시작됩니다. 새벽 6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저녁 6시까지 현장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양토목분야에 대한 내 꿈을 스케치하다”

2014년 4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4개월 반동안 JSTPP (Jeddah South Thermal Power Plant) 현장에서 OFFSHORE 부서에 업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같기도 하고, 긴 시간 같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OFFSHORE부서에 업무를 하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사귄 수 있었으며, 영어 구사능력 또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자기의 미래 직업과 업무를 미리 답습해 봄으로써, 과연 미래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지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좋았습니다. 나름 바다 인근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해양토목에 대해서도 깊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ridge의 시공 현장체험도 직접 해보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현지의 연륜이 깊은 전문가와 멘토 같은 인생 선배님들께 배우고 함께 업무를 하여 영광이었으며, 인턴생활 동안 모든 공정 진행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게 되어 향후 해양 토목 분야에 대한 제 청사진을 그려 볼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틈만 나면
다치고 사고치는
민서야!
앞으로는 건강히
조심해서 다니고
꼭 성공하렴!”
박정훈



“사우디에서 고생하셨습니다.
키 크고 잘 생기고
섹시한 정훈이 형 ^^”
박민서

“제다의 웅장한 시공 과정과 전경”

처음 사우디에 왔을 때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낯선 환경들이 쉽게 적응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 같이 챙겨주시고 업무적으로는 선생님 같이 챙겨주시던 차장, 부장님들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게 되었던 업무는 Power block 현장관리와 콘크리트 관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처음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Global Staff들에게 원활하지 않은 영어 의사소통으로 현장의 상황과 용어, 그리고 업무에 대하여 하나 하나 물어서 배워나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언어의 장벽도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물어볼 것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현장의 전경은 정말 웅장하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돌아켜보면 기억에 남는 구조물은 Steam Turbine Generator 와 Chimney인 것 같습니다. STG 는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해내는 시설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만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콘크리트가 타설(콘크리트를 공사 현장까지 보내는 작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Chimney 라는 구조물은 Windshield라고 불리는 구조물 안 굴뚝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 주는데 총 220m가 올라갈 때까지 쉬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동그란 플랫폼이 유압하는 jack에 의하여 올라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해 나갔습니다. 한 130m쯤 타설이 완수되었을 때, 플랫폼 꼭대기에 올라가니 현장의 전경이 다 보였습니다. 위에서 보는 현장은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대한 창조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Global Staff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도 참 인상깊었습니다. 주말마다 풋살장에서 축구를 한 것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축구를 하려니 5분만 뛰어도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우디 JSTPP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큰 재미와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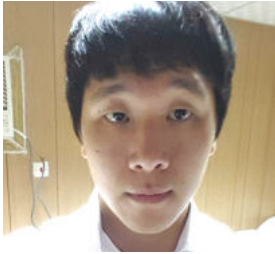
“세계인의 관점과 소중한 분들에 대한 감사함”

3월 31일 사우디아라비아 Jeddah 팀은 한국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친구, 가족들을 떠나 그리고 한국에서의 편한 생활을 잠시 멈출 생각에 막막함과 뜻 모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4월 1일에 현장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부서 배치를 받아 8월 12일까지 QA(Quality Assurance)/ QC(Quality Control)부서에서 실습과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건축공학도이기에 플랜트산업이 어떠한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며, 부서 특성상 제 전공뿐 아니라 다른 기계, 전기 직무도 공부할 수 있어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현지 직원들의 배려에 힘입어 업무와 함께 지식을 연마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일부러 공부 자료를 덤으로 주시고 틈틈이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칫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제 생각과 시야를 한층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적절한 단어, 적절한 문장이 생각나지 않아 대화의 어려움을 느꼈던 처음의 저의 모습과는 달리 8월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향상된 모습을 제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직원들은 우리와 다르게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는 지를 알게 되어 세계인으로 갖춰야 할 넓은 사고 등을 생각해볼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턴으로 JSTPP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승훈이를 위로해주고 싶다.
거봐...너도 다 할 수 있어.”
오거장게

타지 생활을 하니, 늘 곁에 있어 정작 소중함을 몰랐던 존재들에 대해 감사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6시간의 시차가 있는 그 곳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통해 그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했던 제 모습을 반성할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소중한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파견 사업장에서의 생활이 제 자신에 대한 여러 관점, 가치관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외로움과 힘겨움을
극복한 거예요!
더 넓게 더 멀리나는
시공인이 되자!!!”
백승훈

“새로운 도전의 방향을 제시해 준 값진 경험”

사전교육의 즐거움도 잠시, 처음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길은 설렘 반, 두려움 반의 감정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현지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가서 제가 맡게 될 업무는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였고,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고 제 한계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처음 현대중공업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외임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나오고, 숙소도 새로 지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현장의 현실과 사회 생활의 냉정한 부분들과 마주하게 되어 실망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러 온 상황이기에 불편한 부분은 극복해야 하지만 다소 힘들었던 것은 현장에서 가끔은 소외된다는 느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몇의 직원 분들이 은근히 챙겨 주었던 따뜻함이 힘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실 건축팀의 김태호 팀장님과 강석용 차장님, 김선욱 사원 등이 없었다면 제 인턴 생활에서 따뜻함은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일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하나라도 더 배워가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 결과, 3달 정도 지났을 때에 드디어 저도 한 명의 직원으로 현장 주재원분들께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또한, 해외 플랜트 현장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에 대하여 몸소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 꿈과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막막하기만 했던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되었고 그런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접할수록 많이 얻는다”

처음 해외인턴을 지원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4.5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떤 도움이 될까? 기대도 많이 되었지만 걱정도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턴 생활이 끝난 이 시점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육상 토목팀에 있으면서 현장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공분야와 연결된 직무로써 책에서만 접한 내용들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새로운 지식까지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다양한 공법들이 직접 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사진을 찍으며 정리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현장생활을 경험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멘토인 김진우 부장님, 문상윤 차장님, 방정현 차장님의 체계적이고 생생한 지도 아래 Daily Report를 작성하였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의 안전과 효율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어깨 너머로 배우며 현장 직원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식, 축구, 족구 등 다양한 친목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며 금방 친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보고 배울 수록 많이 보이고 그런 기회나 노력이 없다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작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턴 경험을 초석으로 훌륭한 Site Engineer, Manager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다 8명의 진한 우정과 기회를 공유한 인턴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잘 될거예요.
쏘리~쏘리~
명준이형 백이!!”
정수원



“제다 막내, 수원아
정말 수고 많았어.”
이명준

“멀고도 가까운 ‘중동’을 마주하는 행운”

2014년 3월31일 기대에 부푼 마음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갔습니다. 약 14시간의 비행 끝에 사우디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인생에서 첫 장기 비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과 긴장감 때문인지 잠도 오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반의 큰 기대로 인해 현대중공업 제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기대보다 열악한 시설과 삭막한 분위기, 그리고 부족한 개인공간... 그렇게 저희 제다 인턴들의 현지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다들 각자 부서별로 배치되어 근무에 임하게 되는데 저는 보일러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인사업무, 노무관리, 작업공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하여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로 출근하게 되는데 아침마다 10분 걷는게 그 때는 어찌나 힘들었던지... 출근 후에는 컴퓨터를 켜고 해외 근로자들의 인원 관리 및 미팅 자료 준비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해외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등 사무실과 현장을 오고 가면서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처음엔 많이 어색하고 적응하느라 힘들기도 하였지만 사우디 생활에 곧 잘 적응해서 직원 분들과도 금세 친해졌고 퇴근 후에 차장님, 부장님 및 기타 직원들의 방에 놀러 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136일간 제다에 있으면서 비자 때문에 추가로 2개국을 더 다녀왔는데 그것 또한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중동지역에서 생활하며 직장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현지에서 4.5개월의 시간을 잘 보내고 많은 것을 배워와서 정말 기쁩니다.



“제다 마미,
지원이 덕분에
더욱 소중한
인턴 경험이 되었어!!”
최완수

“현장에 계신 모든 아버지를 그리며”

제가 중동 플랜트 현장에 지원한 결정적인 이유는 인생을 살면서 평생 중동을 가 볼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외를 적게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성인이 되고 한 달 이상 해외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글로벌인턴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을 하고 들뜬 마음으로 도착한 사우디는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180도 다른 환경이었기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선, 사우디 현장은 한국인과 현지인인 사우디아라비아인을 제외하고도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어와 음식, 가치관 등 문화적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너무나 큰 현장이었기 때문에 모두의 편의를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조국의 생활 시간대가 맞지 않는 한 외국인 노동자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나마 한국인들은 숙소에 wifi가 전부 설치되어 있었고 복도에 공짜 전화기가 한 대씩 놓여있어서 가족들과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외국인들은 하루에 가족들과 연락하는 1시간을 위해서 하루 일과를 건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구별할 것 없이 모두가 가정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힘들게 일하는 가정이 가족들을 너무 그리워하는 만큼 모국에 있는 가족들은 가정의 그리움과 애환을 알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저도 향후 몇 년 후, 과연 아버지가 될 준비와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제 아버지의 어깨와 마음에 있는 부담과 애환을 비로소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인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역량과 글로벌 마인드 등도 물론 배웠지만 인생 수업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서 정말 후회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최완수 국민대학교/건설시스템공학



“어디서든, 어느 국가에서도 적응하고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4.5개월의 인턴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어중간한 기간 동안 업무를 하다가 그 자리를 비우면 후임자에게 관련 업무가 큰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Utility Area에 담당 Engineer로 일을 배치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끔 기회를 주신 현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건축팀에서 일하는 내용들이 제 전공지식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인원 파악부터 공정 progress와 letter까지 보내는 업무 등 대부분의 일을 전문 엔지니어처럼 완수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지식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 바닥, 벽, 마감 등은 어떻게 할지 모든 공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고, 지금 저에겐 그 경험들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자산은 자신감이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일꾼으로서 앞으로 해외업무의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규제와 제약이 많고 굉장히 더운 날씨로 적응하기 힘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완벽하게 적응하고 생활한 경험으로 인해 앞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느 일을 해도 잘 해낼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다 말형으로
몸 고생, 마음 고생이 많았죠?
많이 고마웠고
취임도 꼭 잘 되길 바랍니다”
현지원

귀국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현지인 대부분이 무슬림이라 ‘라마단’이라는 종교의식 수행기간이 있었습니다. 약 1달간을 낮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45도가 넘는 한낮의 더위에 물도 마시지 못하고, 사무실에 들어와 휴게실에서 현지인 물레 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했던 극기체험과 같은 경험을 떠올리면 지금도 오싹합니다. 힘들었지만 소중한 기억이 더 많은 인턴의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문화탐방

“잊지 못할 바레인과 두바이로의 비자여행”

저희는 바레인과 두바이로 각각 2박3일씩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바레인국립박물관에는 바레인의 축소 지도가 전체 바닥에 그려져 있으며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곳을 첫 방문지로 하여 바레인 고대 유적지, 생명의 나무, F1 레이싱경기장, 바레인 1호 기름 시추 장소, 해수욕장 등 다양한 곳을 들릴 수 있어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바레인도 기억에 많이 남지만 단연 압권이었던 여행지는 두바이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버즈 칼리파’, 7성급 호텔인 ‘버즈 알 아랍’, 두바이몰과 아쿠아리움, 모노레일을 타며 볼 수 있는 도시관광, 호텔에 있는 수영장 등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버즈 칼리파’는 일반인에게는 124층까지 출입이 허용되어서 여기 올라가서 두바이 도시의 풍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7성급 호텔인 ‘버즈 알아랍’은 실제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주변의 해변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두바이의 전통시장인 수크에서는 다양한 아랍품의 제품도 팔고 있어 옛날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금을 파는 자판기가 있어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모노레일을 타며 도시관광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두바이의 멋진 풍경과 도시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희 상주한 호텔에는 수영장이 있어서 인턴끼리 수영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두바이에서의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허용된 식당에서만 식사가 가능하였고, 일반 길거리에서는 물조차 먹으면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두바이 관광을 하였지만 실제 두바이의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지 못하여 아쉬웠고, 저희 8명의 인턴은 물 2통을 화장실에 숨어서 나눠 먹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제다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MERS’ 전염병 때문에 현장에 묶여 있어야 했기 때문에 비자연장을 위한 여행은 저희들에게 단비 같은 기회였고, 정말 아무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SAUDI ARABIA



—Shuqaiq

웅성필
최민기
최원식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Shuqaiq

“신뢰와 기술이 융합된 사우디아라비아 슈케이크 화력발전소”

슈케이크 현장은 사우디 남서부 지잔시에서 북쪽으로 1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완공 계획은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슈케이크 화력발전소는 사우디아라비아 전력공사 (SEC)가 발전시설의 중장기 확충사업을 함께 따라 총 발전용량 2640MW급 초대형 중요 연소 초임계압 화력발전소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발주사로부터 기술력과 공사 수행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2012년 10월, 32억불 규모의 ‘제다 사우스 화력 발전소’를 수주한 데 이어 2013년 8월에는 33억불에 이르는 슈케이크 공사의 수주에도 성공했습니다. 제다 사우스 화력발전소에 이은 연쇄 수주로 더욱 책임감이 커진 현장은 좀 더 신속하고 정밀한 공정을 위해 불철주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미스터 옹!
취업 기념으로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최원익

“단연 손꼽히는 탁월한 선택, 글로벌인턴 프로그램”

아산나눔재단 글로벌인턴에 지원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인턴을 통해 제가 원하는 분야의 현장 지식을 습득하고 남들이 가기 어려운 사우디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저는 건축 공무부서에 소속되어 건축공무 절차를 생생하게 교육받고 실제로 적용하여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순서를 정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교육받았습니다. 계약 관련 업무를 할 때는 정확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멘토이자 현지 직원에게 직접 질문한 후,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턴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전문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는 마음가짐을 통해 더 많은 배움의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슈케이크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인 글로벌 스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인시간에 영어 공부도 하여 조금 더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턴이라면 적극적인 자세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워야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보아야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다는 제 신념이 맞음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퇴근 시간이나 주말의 개인 시간에는 ‘풋살’ 동아리에 참여하여 직원들과 친분을 쌓으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경험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에게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음으로 시작한 글로벌인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슈케이크 현장의 건축 공무부서에 속한 이후부터는 부서에 도움이 되는 인턴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했던 업무들이 자연스럽게 제게 더 큰 도움이 되었고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날의 설렘과 마지막 날의 아쉬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산나눔재단과 현대중공업 슈케이크 현장에서 저를 지도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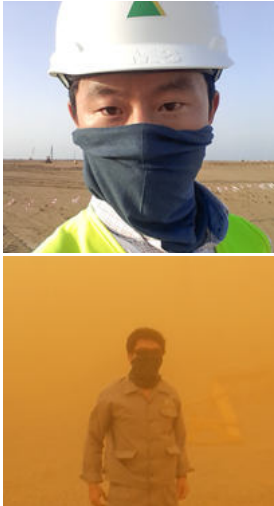


“현장에서 생생한 배움”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슈케이크 플랜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열악한 토목 작업 현장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과연, 여기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회상하면 파견생활을 통해 많은 경험과 배움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저는 토목과 출신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먼저 적극적으로 현지 직원들과 부장님께 여쭙보고 2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차츰 적응해나갔습니다. 의지만 가득해 처음에는 지루해하기도 하고 답답하였지만, 곧 현장에 투입되어 실무도 익히며 현대중공업 직원 분들과 외국인 직원들 덕분에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토목 전공으로 능력으로 간접 경험을 하였는데 실제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배우니 꿈만 같았습니다. 전공에 관한 일도 직접 담당할 수 있었고, 현장이 변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그 행복한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생활이 2개월이 되었을 때, 문득 한국이 그리고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런 위기 때에 두바이로 2박 3일동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온 인턴 동료들과 여행 계획을 세워 아부다비의 ‘그랜드모스크’, 두바이의 ‘버즈칼리파’ 등 유명한 명소를 보니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돌아와보면 가장 감사한 것은 저희 슈케이크 현장 3명의 글로벌인턴이 서로 감정을 진솔하게 공유하고 배려하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축구 동아리에서 같이 운동도 하면서 다양한 인생얘기와 꿈을 그려나간 것도 정말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너무나도 좋은 주재원 분들의 보살핌이 있었던 것 등은 두고두고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추억과 경험들이 앞으로의 인생에서의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기수들도 좋은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슈케이크의 경험제여,
언제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함께하길, 슈크란!”
동성필



“형! 4.5개월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이뤄내봅시다.
슈바이크 패밀리 수직췌!”
최민기

“미라지와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곳”

아직도 찌는 듯한 더위와 낮과 밤에 계속 나오는 뜨거운 물이 생각납니다. 섭씨 50도의 불볕더위에도 습도가 다행히 낮아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귀국 후, 다시 맛있는 우리나라의 한여름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모래 바람과 강렬한 태양 속에 저희의 눈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발명품이 선글라스가 왜 그리도 거기서는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는 거의 안 온다는 사우디에 생활하면서 그래도 신기하게 딱 한 번 운 좋게 사막의 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사우디를 보면 국토가 황토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 대지는 온통 황토색 모래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농촌이 푸른색인 거랑 비교해 보면 “여기는 real 중동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는 신기한 영화 같은 ‘조각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막과 더위만이 가득할 것 같은 사우디에도 ‘아브하’라는 고산지대같이 시원한 지역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또한, 하루 일과 중에 ‘살라타임’(기도하는 시간)이 있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아랍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사회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침 7월에는 ‘라마단’기간이라서 낮에는 쉬고 밤에 활동하는 사우디 무슬림의 고유한 종교생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에서 종교를 인생 지표로 사는 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느긋한 사우디 사람들에 비해 한국인의 신속함과 성실함이 석유자원이 풍부한 사우디하고 다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봤습니다. 가끔 현장에 가기 위해 운전을 했는데 그럴 때면 살벌한 도시 상황 때문에 엄청 긴장이 되었습니다. 3차선에 5개 차량이 같이 이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주행도 난무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항상 신분증 소지해야 해서 이동 시에는 감옥을 출입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환경, 다른 종교의 그들이라 당연히 오롯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고 이상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들을 알면서 제 자신과 더불어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과 세계인의 다양성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두바이로의 꿀맛 같은 여행”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현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흥해와 공사 현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외식이라도 하려면 왕복 4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지역으로 가야해서 4.5개월이란 인턴생활 동안 다행히 두번의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두달에 한 번 다른 나라에 가서 비자 연장의 절차로 가는 여행이지만 돌이켜보니,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 덕분에 그 곳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지역을 여행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부다비의 ‘그랜드모스크’, ‘애미레이츠 팔레스 호텔’(7성급 호텔),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 ‘버즈 알 아랍’(7성급 호텔) 등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거의 다 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팜주메이라’에 있는 ‘아쿠아 어드벤처’라는 ‘워터파크’를 가서 엄청난 스케일의 놀이 기구를 정말 재미있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즐긴 것이 최고의 여행 추억 같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너무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아주 새까맣게 탔지만 그 곳에서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함께 해주신 차장님, 부장님과 맛있는 전통 음식도 즐기고 ‘버즈 칼리파’의 분수쇼도 관람하니, 당시 2개월 간의 여행에 대한 목마름이 싹 싹겨 내려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관광지를 둘러본다고 조금은 힘들기도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외에 다른 중동국가를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SAUDI ARABIA



HAL (Alkhobar)

박진홍
윤재웅
한지수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HAL

“바쁜 현장공사 속의 HAL법인!”

HAL법인은 현대중공업의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사업장의 센터격인 현지 법인입니다. 법인은 Alkhobar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인의 각 현장에서 많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열사의 땅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HAL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원활한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법인이 각각 배정하는 현장으로는 JGP, UGP, SGP현장이 있습니다.

JGP(Juaymah Gas Plant)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인력 • 안전관리, 하도급 업체 선정 및 인력 관리 업무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UGP(Uthmaniyah Gas Plant)현장은 착공을 가장 늦게 시작한 공사현장입니다. 2013년 09월 01일 착공을 시작한 이래로 UGP의 최종 목적은 Gas & Steam을 이용하여 사우디의 주민들에게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며,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Plant에 규모를 늘리기 위한 증축 공사를 위한 현장입니다.

SGP(Sedgum Gas Plant) 현장은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티하마 발전회사의 티하마 열병합발전소 확장사업을 위한 3개의 현장 중의 하나입니다. 3억불에 계약을 하였으며 2015년 4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HAL 본사인 Dammam에서 131km 떨어져 있으며 숙소인 Uthmaniyah Camp에서 64km 떨어져 있어 버스로 이동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게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HAL법인에서는 총괄적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박!
HAL 법인 말형으로
철없는 동생
잘 보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가서 다시봐요!”
한지수

“한국과 사우디의 ‘아라비아 로렌스’를 꿈꾸며”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면서 크게 세가지를 실행하여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랍인처럼 손으로 먹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 풍습을 이상하게 여긴 저와 동료들인데 인식과 행동이 바뀌는 것은 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 모두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 아랍 문화에 동화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생소했던 손으로 식사하는 것은 어느덧 적응이 되어 그 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 삶이 ‘아라비안’에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둘째는 여러 국가의 친구들이랑 고루 친분을 쌓았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지인 중 대부분이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사우디 주민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글로벌 마인드가 무엇인지 늘 염두하며 인종, 민족, 문화의 장벽을 넘어 다 함께 어울렸습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동료인 ‘무함마드 하페즈’ 친구와는 항상 점심을 같이하면서 깊은 생각과 우정도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의 실제 고향인 인도를 꼭 여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우디의 휴일인 금요일에는 외국인 직원들과 바다여행을 계획하여 같이 수영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잘한 점은 사우디에서 라마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 식사하는 라마단 관습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관습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낮의 금식이 끝나는 저녁 6시 반 정도에 ‘이프타르’(‘금식을 깬다’는 의미)가 시작되면 아랍인 친구와 같이 식당에서 사우디의 대중 음식인 스프와 대추 야자, 그리고 쿵즈(빵)을 감사히 먹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경험하기 어렵다는 중동 문화와 정통의식을 이슬람 발원지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자 행운이었습니다.



“준비하는 너에게
반드시 기회는 온다.”
박진홍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

저는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 모든 걸 잃게 되는 순간도 경험하니 정말 꽤 긴 시간을 허무감에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궁리해보자’는 것이었고 다시 열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점점 확신도 줄고 자신감도 점점 주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매체를 통해 접한 한국의 직장문화는 문제가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경험이 제게 많은 답을 제시해주었습니다. 회사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실제 직장문화, 업무 노하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제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수 천 번을 생각하고 윤곽을 뚜렷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 HAL법인의 Jazan 설계사무소에서 저는 엔지니어링 팀장님의 보조로서 문서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엔지니어들과 직접 일하는 경험과 사우디 ‘아람코’의 해외 직원들과 한국 직원 간의 소통방식, 업무 진행방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토플시험을 틈틈이 준비하는 것, 내면의 변화를 체득하는 ‘적정 라이프 스케줄’ 발견, 취업 하고 싶은 기업 팀장님과의 카운셀링, 독수리 타법의 교정, 아랍문화 체득 등 소중한 경험과 배움이 있었고 그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도 느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왜 곁에 많이 두어야 하는지, 말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 등등 앞으로의 인생여정에 필요한 깊이 있는 깨달음이었습니다. 8월 13일을 끝으로 글로벌인턴 대장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실패를 겪게 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 이었다는 것입니다. 향후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형! 4.5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교환학생
바로 가시는 데
좋은 경험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웅

“뜨거웠던 HAL법인에서의 글로벌인턴기”

4월 1일, 인천공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되는 인턴들과 모여 다 함께 각자의 도전과 목표를 안은 채 낯선 미지의 땅, 사우디로 향했습니다. 두바이와 바레인을 경유해 도착한 사우디는 살이 타는 듯한 고온과 광활한 사막의 풍경에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제가 HAL법인에서 배정받은 HR부서는 진정한 글로벌 HR 부서답게 파키스탄, 인도, 필리핀, 사우디 직원까지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또한, 책으로만 접한 전공지식들이 세계적 기업인 현대중공업에서 어떻게 적용 및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실무경험도 쌓을 수 있어 매 순간이 배움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 홀로 HR 부서에 있을 때, 외국인 동료의 영어가 들리지도 않고 소통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회화 표현을 매일 체크하여 정리하고, 퇴근 후에도 틈틈이 영어공부를 하니 일정 기간이 지나자 소통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자 트립으로 세계적인 관광지인 두바이도 직접 방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버즈 칼리파’와 인공눈이 가득한 실내 스키장 등은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입니다. 귀국 즈음, 무슬림들이 매년 한달동안 수행하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어, 색다른 경험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5 번씩 알라신을 향해 기도하는 상점 주인, 식당의 문을 닫는 종교적인 ‘살라 타임’, 처음 먹어본 양고기 등 많은 경험과 인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아들처럼 챙겨주고, 조언해 준 상사 분들의 보살핌 덕분에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턴 활동을 통해, 제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직접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잘 간직하여 정주영 회장님의 “해봤어” 라는 그 현대의 도전정신으로 청춘을 보내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을 참가 하여 많은 체험과 도전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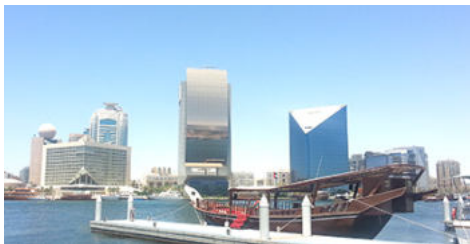


“사막의 화려함을 간직한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입국일 기준으로 60일이 지나기 전에 비자를 갱신을 위해 주기적으로 인근 국가로 여행을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Tihama 인턴들과 함께 두바이로 2박 3일간 비자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두바이 여행은 시작부터 아주 스릴이 넘칩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하는 항공편이라 새벽 5시에 공항에 모이기로 약속하고 꼭 늦지 말자며 서로를 신신당부하고 여행 전 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차량을 배차받아 공항으로 출발하는 순간, 엔진 결함으로 시동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운전수와 저희는 공공대며 30분을 소비했지만 결국 차량은 완전하게 고장이 났습니다. 부랴부랴 다른 차량을 배차 받아 공항으로 갈 수 있었고 다행히 무사하게 두바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가게 된 두바이에서 저희는 세계 으뜸의 쇼핑몰인 ‘두바이 몰’로 갔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명성에 걸맞게 쇼핑물 앞에는 값비싼 차량들이 준비했고 특히 모두 금색으로 도금된 ‘벤틀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여 인턴들은 그 차량을 사진에도 담고 마음에도 담는 것 같았습니다. 두바이 여행의 둘째날에는 수영장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피로를 풀었습니다. 함께 해 준 동료 인턴들과 같이 한 여행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UNITED ARAB EMIRATES



Dubai
박세진
이덕희

ABOUT

Hyundai Oilbank Middle East Office in Dubai, U.A.E.

“원유의 수입과 동시에 수출시장 확대를 맡은 현대오일뱅크 중동지사”

현대오일뱅크 중동지사는 두바이 자유무역지대 DMCC(Dubai Multi Commodities Center)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우수한 중동 원유의 안정적 도입과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정유 회사들이 앞다퉈 고도화 설비에 투자 하면서 고유황 중(重)질 원유의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동 산(産) 고유황 원유 확보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약 80% 이상이며, 현대오일뱅크는 87% 수준 입니다.

중동지사의 핵심업무는 중동 산유국을 밀착 관리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최적의 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라크사태와 이란 핵협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원유 확보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업무는 석유제품 트레이딩 기회의 확대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인근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수출을 활발히 하였는데, 주요 소비자인 중국은 자체 정제능력이 높아지고 일본은 수요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석유제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지역(중동,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시장을 집중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업무를 아프리카의 석유제품시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관련 산업분야에서 신규사업 개발의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기이지만
배우를 같이
정말 많았던 세진아,
정말 고맙다!”
이덕희

“학생신분을 벗어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

4개월 동안의 ‘박세진’은 인턴 전의 ‘박세진’과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여 직장 상사나 동료와 어울려야 했고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인턴사원’이라는 직책을 부여 받았는데, 그 부담감과 마음가짐은 학생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이등병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었고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환경은 익숙한 환경으로 변했고 저도 점차 중동지사에 물들어 갔습니다. 사회생활이 무엇인지,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직에 소속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담았던 현대오일뱅크 중동지사는 1~2인 운영 규모를 가진 작은 사업장입니다. 부장님과 과장님이 직접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제가 주요업무를 할 수는 없었지만 배움과 경험의 기회는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미팅 세팅, 전화 통화, 컨퍼런스 콜 등 가까이에서 보고 직접 준비하면서 직장에서 진정한 주인의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발현할 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 외에 두바이 생활은 현지 Emirati 보다 인디언, 필리피노, 파키스탄인 등 타국인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바이가 정말 중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 3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도처의 수많은 친구를 만나 교류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글로벌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주기적인 외국인 미팅도 참여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이제 인턴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제 포스트 인턴 Story는 이제 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시간들이 제 인생을 굳건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배우고 찾고 몸소 체험하고!”

두바이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인구의 80% 이상이 외국 이주민이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지인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자 이슬람 문화 강연을 들었고, ‘밋업’이라는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를 통해 현지인의 사교 모임에 참석하며 가정방문도 하는 등 많은 현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근무 중에는 UAE로부터 수입한 디젤을 이라크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업무를 보조하였습니다. 당시 이라크 고객사의 긴급요청으로 두바이 상공회의소, 주두바이 이라크 영사관 등을 거쳐 원산지증명서의 공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고객에 전달 하기까지는 고객의 가치사슬 프로세스를 원활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산업에 흥미를 갖게 된 저는 현대오일뱅크 인트라넷 이러닝 프로그램의 해상운송 강의를 수강하며 관련 지식을 넓혀가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행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이웃나라인 오만을 방문해 천혜의 자연을 구경하고 세계 각지의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 연휴 기간에는 케냐로 떠나, 실제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사자, 코끼리, 기린 등 야생동물을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값진 경험도 하였습니다.

“덕희야 수고 많았고,
다음엔 술 한 잔
같이 기울이자!”
박세진

매번 배우고 몸소 체득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큰 혜택을 받았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행운이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이 제게 가르쳐 준 ‘나눔’을 통해 변화한 제가 다른 이들에게도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는 미래를 소망합니다.



“두바이 사람들의 휴양지이자, 신밧드의 나라인 오만”

두바이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들은 30일에 한 번씩 두바이에서 왕복으로 4시간이 걸리는 오만을 비자연장 여행으로 다녀오곤 합니다. 비자연장 절차는 UAE 출국 도장을 받고 오만의 입, 출국 도장을 받은 후, 다시 UAE로 들어와 입국 도장을 받으면 체류 기간이 늘어나는 형식입니다. 두바이에서 갈 수 있는 오만의 국경은 3곳(하타, 무산담, 알아인)인데, 저희는 4.5개월이란 인턴 기간 동안 운이 좋게도 3곳의 국경을 모두 다녀오고 오만 곳곳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모스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예배 장소로써 중동이라면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만에도 대표적인 모스크가 있는데 이는 바로 ‘술탄카부스 모스크’입니다. UAE의 대표적인 모스크인 ‘아부다비 그랜드모스크’만큼 웅장하고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오히려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곳에서 거금 6천원으로 칸두라를 착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현지인처럼...



또한, 오만의 유명한 싱크홀도 가보았습니다. 수도인 Muscat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고 그 깊이는 대략 30미터쯤 되어 실로 거대한 싱크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침식이나 풍화작용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운석에 의해 생긴 구멍에 바닷물이 차올라 생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인지 여행객인지는 모르겠지만 10~20미터의 위치에서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만 여행은 ‘카우치 서핑’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만난 필리핀, 독일 친구와도 함께한 여행이어서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마무리 매듭’을 함께 여여준 고마운 인턴들

김철진 인턴

글로벌인턴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인턴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턴생들의 앞으로 취업과 사회생활이 기대되고 그대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종혁 인턴

전 세계로 흩어졌던 글로벌인턴들이 하나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세명 인턴

6개월간의 대장정을 글로벌인턴 수련식 준비위원회와 함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아쉬운 마음이 교차하네요.
이 책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지칠 때 작은 위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윤 인턴

‘절에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해서 절은 것’이라 합니다.
멋진 도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이미현 인턴

인턴 생활의 마지막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모두의 앞으가 행복하길 바래요..

조혜림 인턴

마무리를 지으며 4.5개월간의 인턴생활을 다시 느낄 수 있어 좋았고, 그 때의 마음가짐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오계례 인턴

준비위원회 및 팀장님, 매니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지원 인턴

글로벌인턴을 전체 다 아우르고 회상할 수 있는 행사를 제작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박세진 인턴

끝까지 함께 마무리해서 응원하고 아쉽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AsanNanum



www.asan-nanum.org